26일 Market Index
코스피 4711.21 (+13.70)
코스닥 655.71 (+5.07)
금리(국고채 3년) 3.622 (+0.039)
환율(원·달러) 1342.7 (-0.5)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27일 금요일

'반도체 호조' 내년 성장률 4.1%
한은, 기준금리 3.25%로 인상

금통위원 7명 중 5명 인상 찬성
올해·내년 근원물가 2.6% 전망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세와 지속되는 물가 압력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연 3.25%로 올렸다. 올해와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2.6%로 높이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9%로 상향했다. 이는 지난 2021년(4.7%)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에서 4.1%로 대폭 올려잡았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찬성했고, 황건일·이수형 위원은 연 3.00%로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은 7월과 8월 각각 0.25%p 인상한 뒤 지난달에는 동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7월 이후 누적 인상 폭은 0.75%p가 됐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투자 호조에 소득 여건 개선과 재정지출 확대가 더해져 소비 회복세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9%, 4.1%로 8월보다 각각 0.6%p, 1.2%p 높였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기존 2.5%보다 높은 2.6%로 전망했다. 비용 상승의 전이가 이어지고 성장세 확대로 수요 압력도 커지면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를 웃돌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안정 위험도 남아 있다고 봤다. 10월 은행 가계대출은 5조원 늘었다.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은 연 3.25%에 6개, 3.50%에 8개, 3.75%에 7개의 점이 제시됐다. 중간값은 3.50%로, 현 금리보다 높은 점은 21개 중 15개다. 각 위원이 전망의 확률분포를 반영해 3점씩 제시한 결과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1.25%에서 1.50%로 올려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장관 후보자 4인, 본격 청문회 준비

강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홍익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웅순 외교부장관 후보자, 한준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가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에 들어가기 앞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B2B 통합조직, DX직속 편제

내달 1일 DX 조직개편·후속 인사
통합조직 센터장 박찬우 부사장
주택·빌딩 중심 통합솔루션 추진

삼성전자가 기업 간 거래(B2B) 통합조직을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속으로 재편하고 사업부 내 유사 조직을 축소하는 등 완제품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일 DX부문의 조직개편 및 후속 보직인사를 단행한다. 지난 20일 사장단 인사와 24일 정기 임원인사에 이은 후속 조치로, 미래사업 육성과 기존 사업의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는 B2B통합오퍼링센터를 DX부문 직속으로 편제한다. 센터장은 박찬우 부사장이 맡으며 주택·빌딩을 중심으로 통합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 개별 사업부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해 B2B 사업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에는 사업부장 직속으로 통합오퍼레이션센터를 신설하고 최용훈 부사장을 센터장으로 배치한다. 이와 함께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사업부 내 유사 조직을 축소하고 일부 담당 및 랩(Lab) 단위 조직을 폐지한다.

판매·데이터 조직의 지휘체계도 일원화한다. 박순철 부사장이 빅데이터센터와 소비자 직접 판매(D2C)센터를 함께 총괄하며 D2C센터 산하에는 인공지능(AI) 전환(AX)기획그룹을 신설한다.

미래사업 발굴을 위한 인수합병(M&A) 조직도 강화한다. 기존 코퍼레이트 디벨롭먼트(Corporate Development) 그룹을 팀 단위로 격상해 DX부문 경영지원담당 직속으로 두고 장세명 부사장에게 팀장을 맡긴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社告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休&休

2026 입주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2026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티니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6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전국 입주아파트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건축가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SK에코플랜트 '드파인 광안' 아파트. '그랜드 힐 가든' 수경시설과 조형물. /성채리 기자

◆ 심 사 방 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수 상 명 :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수상작 선정 : 12월 1일 ◆ 시 상 식 : 12월17일

metro

對美 관세 15% 일단 유지… 25% 인상 여지

美 압박 수단 '25%' 활용할 듯
"15% 유지땐 선방 이상의 선방"

미국이 한국을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조사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에 제시한 기본 관세율은 한미 관세합의 수준인 15%다. 미측은 다만 향후 협의나 합의 이행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25%까지 높일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미국이 최종 관세 결정에서도 한미 관세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며 15%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USTR은 조사 대상 가운데 멕시코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4개 경제권의 행위와 정책, 관행이 미국 상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USTR이 한국에 제안한 기본 관세율은 15%다. 일본과 EU, 대만, 스위스에도 같은 수준을 제시했으며, 중국은 20%다. 한국·일본·EU·대만·스위스의 경우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기존 301조 관세 등을 합산해 총 15% 수준이 되도록 제안한 것이다.

다만 USTR은 향후 협의 결과나 약속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한국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일본은 20%, EU는 20%, 대만은 25%, 중국은 4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시된 세율은 의견수렴을 위한 제안으로, 확정된 관세나 즉각적인 부과 조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25% 상향 가능성을 당장 관세를 올리겠다는 신호라기보다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25% 상향 가능성이 제시된 배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산식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무역수지가 감안된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대만 역시 기본 관세율은 15%지만 협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25%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무역흑자 증가 등이 고려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대미무역흑자 급증을 언급하면서 "최종 15% 수준 관세가 유지된다면 선방 이상의 선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대미투자가 프레임워크 없이 그냥 맞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日입국 거부' 조국, 다음 달 7일 독도 찾는다… 세 번째 방문 /사진 뉴시스
▲국방부, 北김정은 핵시설 현지지도에 "핵개발 정당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혁신당, 국힘에 '조희대 탄핵 반대 연대' 제안… "당원 아닌 범국민 집회로 가져가야"
▲"하이에나 떼들" 최민희, 경찰 수사 본격화…고소·고발인 잇따라 조사
▲만13세에 성적메시지 179회·성착취물 23개… 공무원 실형
▲경찰, '리트만점' 이진우 주거지 압수수색…'수능시험지 보관' 영훈고도

현대차그룹, 완성차 경영연속성 유지 주요 계열사 현장형 전문가 전진 배치


백철승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박찬영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


나태준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유지한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대표이사·사장단 임원 인사

수익성 개선·미래 사업전환 '투트랙'
현대모비스, 백철승 신임 대표 선임
"검증된 리더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완성차 부문의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부품·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는 사업 정상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이끌 전문경영인을 전진 배치했다.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방어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전동화 등 미래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은 26일 2026년 대표이사·사장단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는 백철승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선임됐다.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에는 박찬영 현대차 구매본부장 부사장,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는 나태준 건축사업본부장 부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사업별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형 전문가의 배치다. 백철승 신임 현대모비스 사장은 현대트랜시스 대표를 맡아 글로벌 비계열 고객사 수주 확대와 부진 사업 합리화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끌었다. 현대모비스에서는 생산·원가 효율화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전동화·전장 등 미래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를 맡는다.

현대트랜시스를 이끌 박찬영 부사장은 현대차 전동화부품구매실장과 구매본부장을 거친 공급망 전문가다. 전동화 부품 현지화와 공급망 최적화 경험을 바탕으로 파워트레인·전동화·시트 등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사업 확대와 사업 체질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나태준 부사장은 전기차·배터리 공장과 북미 산업시설, 데이터센터 등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미래 기술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도 진행했다. 현대케피코 대표이사에는 현대차 SDV플랫폼담당 유지한 부사장이 선임됐다. 현대차 국내생산담당 겸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에는 오준동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부사장이 이동했다. 유지한 부사장은 차량 제어 기술과 SDV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제어기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오 부사장은 AI 기반 생산·품질 기술과 유연한 제조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계열사별 수익성 개선과 미래 사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경영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리더를 중심으로 사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과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사장은 각각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위촉되어, 그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사의 경영 고문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12월 중순 정기 임원인사도 예정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인 평균 종부세 199만4000원

재경부,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년대비 38만8000원 올라

올해 개인 1인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액이 평균 199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8만8000원 올랐다. 1주택자에 대한 평균 세액은 15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7만2000원 늘어났다. 다주택자로 분류된 과세대상 수는 1년 새 10만8000명 늘어난 43만8000명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내 주택 소유자 중 각 해당자 앞으로 '2026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분 종부세(주택분+토지분)는 81만7000명 대상으로 총 6조 원이 고지된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2만6000명이고 세액은 2조3000억 원이다. 작년 고지분과 비교해, 올해 고지 인원은 18만8000명(30.0%) 늘었다. 고지 세액도 7000억 원(13.7%)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년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9.13%)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3.35%)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법인 주택분을 제외한 개인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고지 인원은 66만9000명이다. 지난해(48만1000명)보다 18만8000명 많다. 고지 세액도 지난해(8000억 원) 대비 72.7% 증가한 1조3000억 원에 달했다. 1인 평균 199만4000원을 부담한다. 작년(160만6000원)보다 24.1%(38만8000원) 오른 수치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고지 인원·세액 증가율이 대체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지 인원 중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37만7000명으로, 개인 주택분 고지 인원(66만9000명)의 절반 이상(56.4%)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개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고지 인원은 2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15만1000명) 대비 8만 명(53.0%) 늘었다. 고지세액은 3660억 원으로 작년(1679억 원) 대비 무려 11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는 평균 158만6000원을 내게 된다. 1년 사이 42.3%(47만2000원) 늘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고지 인원은 43만8000명으로 지난해 (33만 명) 대비 10만8000명(32.8%) 증가했다. 고지 세액 역시 도합 9670억 원으로 지난해(6039억 원)보다 3631억 원(60.1%) 많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DX부문 수익성 악화 대응… 공조사업 강화

》 1면 '삼성전자 B2B 통합조직'서 계속

모바일경험(MX)사업부는 사업부장 직속으로 홈 AI팀을 신설하고 정재연 부사장을 팀장으로 배치한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TV와 생활가전 등 자사 제품을 연계해 AI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이다. 전략마케팅실 산하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확대를 위한 플래그십혁신그룹도 신설한다.

생활가전(DA)사업부는 생활가전(HA)사업팀과 냉난방공조(HVAC)사업팀 체제로 재편한다. 김철기 DA사업부장이 HA사업팀장을 겸임하고 임성택 부사장이 HVAC사업팀을 이끈다.

이번 조직개편은 DX부문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VD·DA사업의 합산 영업손실은 올해 2분기 100억원에서 3분기 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존 TV·생활가전 사업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공조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일부 조직의 명칭도 변경한다. 의료기기사업부는 HME사업부로, 글로벌CS센터는 LX센터로 변경한다. LX센터장은 이시영이 맡는다. 글로벌브랜드센터는 글로벌마케팅센터로 명칭을 바꾼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소비 주춤해도 물가부터 잡는다… 한은, 추가 금리인상 무게

고유가·반도체 호황에 물가 압력
물가 상승 장기화 우려에 선제 대응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전망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1.8%로 하향
6개월 후 금리전망 중간값 3.50%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은 누적된 비용 압력에 강한 성장세가 더해져 물가 상승이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7·8월 인상과 10월 동결을 거쳐 인상을 재개한 것. 금통위원 5명이 인상에 찬성했고 황건일·이수형 위원은 동결 의견을 냈다.

◆ 고유가에 강한 성장세… 추가 인상 지속

한은이 우려하는 것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압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강한 성장세와 맞물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높아진 비용압력에 성장세 확대의 영향이 더해질 경우 물가 오름세가 보다 오랜 기간 목표수준(2.0%)을 상회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은 이미 나타난 물가 압력에 대응하면서 향후 물가 불안도 미리 억제하려는 선제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선제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가 긴축 정도를 좀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리 대응해 향후 긴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내년 물가 전망 등을 감안해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억제한다는 포석도 담겼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4.1%로 대폭 상향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2.3%에서 2.4%로 소폭 올렸다.

신 총재는 "물가가 성장에 비해서 많이 안 오르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통화정책을 적절히 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강한 성장세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해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을 2.6% 정도로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는 시계를 대개 2~3년으로 설명했다. 한은은 2028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1%,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의 중간값은 연 3.50%였다. 내년 5월 금리를 대상으로 3.25%에 6개, 3.50%에 8개, 3.75%에 7개의 점이 찍혔다. 위원들이 확률분포를 세 점씩 제시한 21개 중 15개가 현 금리보다 높았다.

다만 금리 경로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신 총재는 점도표에 대해 "폭이 좀 넓은 것도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데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인상의 횟수나 최종 금리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 소비 둔화 인정… 인상 시점 이견

증시 조정이 소비를 제약하는 영향은 전망에 반영했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을 2.1%에서 1.8%로 낮췄다. 주가 하락이 금융여건을 긴축적으로 만들고 가계 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제 전체에는 소비뿐 아니라 투자와 수출, 정부 재정·소비도 함께 작용한다고 봤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4%로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기업의 소득이 성과급·배당과 세수를 통한 재정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고려한 판단이다.

이런 소득의 소비 파급에는 시차가 있다. 세수 증가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고, 기업이 보유한 자금도 이후 투자와 배당에 쓰인다. 신 총재는 이런 경로를 감안한 내년 4.1% 성장 전망에 대해 "그만큼 총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 위험도 남아 있다. 단기자금시장과 신용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10월 은행 가계대출은 5조원 늘었다.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 기대도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취약차주에는 재정 지원과 재정을 동반한 금융정책, 필요시 채무조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신 총재는 "추가 인상의 시기 등은 성장과 물가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가계 실질소득' 10분기 만에 감소
고·저소득층 격차는 더 벌어졌다

데이터처 '3분기 가계동향' 조사
3%대 후반 경제성장 전망과 엇갈려
3분기 명목소득 늘었지만 실질 2.1%↓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 작용
하위 20% 소득 줄고 상위 20%는 늘어

가계 실질소득이 10개 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 후반에 달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과 대비된다. 다만, 작년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도 작용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8% 늘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2.1% 줄었다.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은 2024년 1분기(-1.6%) 이후 10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감소 폭도 2023년 2분기(-8.9%) 이후 13개 분기 만에 가장 컸다.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가계소득과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데엔 시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실질소득 감소에는 지난해 일시적인 지원금에 따른 기저효과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3일 올해 3%대 후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부문 간 성장속도 차이가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여건의 개선 속도가 경기 개선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소득 원천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348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임금근로자가 늘고 명절 상여금 등으로 임금이 오른 영향이다. 반면 사업소득은 97만5000원으로 1.4% 줄었다.

이전소득은 84만5000원으로 8.5%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지난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로 15.4% 줄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추석이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9월로 옮겨온 영향 등으로 20.4% 늘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이전소득에서 기저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소득 증가율 자체가 둔화됐다"며 "근로소득은 실질 근로소득도 늘었지만 사업소득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업소득 감소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자영업자 증가 폭 둔화, 물가·금리 변동에 따른 사업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9배로 지난해 같은 분기 5.07배보다 0.32배 포인트(p) 올랐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는 뜻이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7만7000원으로 2.7% 감소했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1174만6000원으로 1.4%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증가했지만 1분위는 24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9.2% 줄었다. 반면 5분위는 833만원으로 4.9% 증가해 계층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데이터처는 1분위에서 근로자 가구 비중이 줄고 무직 가구 비중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분위 근로자 중에는 상용직보다 임시직이 많이 분포하는 특성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신선식품·육류 매대 '텅텅'… 기약없는 휴업에 업체 '한숨'



영업 중단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강서본점의 풍경. 텅 빈 매대에 상품 수급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김서현 기자



르포 | 홈플러스, 또 다시 '셧다운'

사람들은 쇼핑카트를 끌고 있었지만 매대는 텅 비어 있었다. 전 점포 운영 중단을 하루 앞둔 홈플러스는 할인 상품을 건지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상품이 빠진 매장의 풍경은 삭막했다.

26일 오전 찾은 홈플러스 강서본점은 여타 대형마트들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한창인 김장철을 맞아 할인 행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시즌 상품은커녕 일반 상품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거의 모든 매대가 비었고 몇 명의 직원만이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

홈플러스는 27일부터 본사와 마트 전 점포의 운영을 중단한다. 26일 온라인 배송을 전면 중단한 데 이은 것이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6일까지 점포 영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재개장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운영 중단 소식을 알린 전날 인수의향자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도 생겼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홈플러스 전체 인수를 희망하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던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농성을 중단하고 성명을 냈다. 노조는 "홈플러스의 생존은 홈플러스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외주 노동자, 입점업주의 생계도 걸려 있다"면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 의향자의 등장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열렸지만 영업 중단을 앞둔 현장에서는 경영난의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늘부터 본사·마트 전 점포 중단
인수 의향자 등장에 재기 기대감
노조, 농성 중단하고 정상화 협력

할인상품 기대로 방문한 고객들
진열 상품 하나도 없어 구매 못해
입점업체 1층 '북적' 3층 '텅텅' 대조
직원 급여·상여 체불상태 '여전'

영업 중단을 하루 앞둔 홈플러스는 거의 모든 상품을 매대에서 거둬들인 상태였다. 신선식품 코너에는 키위와 사과 등 두세 종류의 과일과 당근 등 일부 채소만 남아 있었고 육류·수산 코너에서는 단 하나의 상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냉동식품 코너도 마찬가지였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본사 방침을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델리 코너에는 식자재 소진을 위한 일부 메뉴만 놓여 있었고 베이커리 코너인 몽블랑제에는 케이크 한두 개만 남아 있었다.

매대는 비었지만 점포를 찾은 사람들은 많았다. 운영 중단 소식을 듣고 남은 상품의 할인을 기대하며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고 소식을 접하지 못한 채 방문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진숙(66)씨는 "내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는 뉴스를 보고 할인 상품이 있을까 해서 찾았다"면서 "상품이 하나도 남지 않아 구입한 게 없다. 즉석식품 정도만 사려 한다"고 말했다.

조진영(40)씨는 운영 중단 소식을 모른 채 방문했다. 조씨는 "열흘 전쯤 왔을 때는 지금 같은 풍경이 아니었다"면서 "오늘 와보니 상품이 하나도 없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사정이 좋지 않아 닫는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비식품 코너에 남은 상품은 그릇과 의류, 문구류, 차량용품 일부뿐이었다. 그나마 남은 상품도 가짓수가 많지 않았고 곳곳의 매대가 비어 있었다.

가전제품 등 일부 비식품 코너는 지난 8월 13일 운영을 재개한 시점부터 사라졌다. 홈플러스는 재개장 당시 소요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 방식을 조정했다. 복층 매장을 단층화하고 식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 회전율이 높은 생필품 중심으로 매장을 꾸리면서 비식품 상품군을 대폭 축소했다.

입점업체들은 운영 중단 소식에 시름이 깊어졌다. 다만 층별로 상황은 다소 달랐다. 접근성이 좋고 입점업체가 몰려 있는 1층은 여전히 상품을 살피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 활기가 돌았지만 2층과 3층은 사정이 달랐다. 다이소와 푸드코트가 있는 2층은 그나마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3층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점원마저 자리를 비운 매장이 대다수였다.

1층 A 입점업체 점원은 "운영 중단 이후에도 계속 영업할 방침"이라며 "지난번 운영 중단 당시 타격이 컸지만 그래도 손님이 아주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면 3층 B 입점업체 점원은 "운영 중단 때 매장 운영이 의미 없을 정도로 손님이 없었다"면서 "이번 운영 중단 소식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3층에 위치한 세탁소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정모씨는 "이곳 세탁소가 가까워서 계속 이용해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차장에도 차량이 적지 않았지만 모두 쇼핑객의 차량인 것은 아니었다. 상품을 구매할 목적 없이 주차장만 이용하는 방문객도 있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전 점포 운영을 중단한 뒤 8월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을 수혈해 가까스로 일부 점포를 다시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재개장 직후 100억원을 웃돌았던 일매출은 최근 20억원대까지 떨어졌다. 유동성 압박으로 납품 거래 정상화가 지연된 데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추석 특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이 심화했다.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조차 어려워지면서 11월 초 일부 매장이 먼저 문을 닫았다.

직원 급여도 체불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20일에야 8월분 급여 지급을 완료했지만 9~11월분 급여와 명절 상여금은 여전히 체불 상태다.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퇴직 예정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경영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전면 취소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아직도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오늘도 조금 더”

We Do Technology | SK hynix

초심

李 "10년 뒤 먹거리 준비해야"… 7대 SEED 조기 성과 주문

미래 산업 주도권 선점 필요성 강조
"올해 경제성장률·수출 등 성과"
민간 협력 확대·규제 혁신 등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7대 SEED(시드) 프로젝트는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수출·국민소득 등에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이후 10~20년을 책임질 먹거리를 준비하는 작업은 아직 더디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각 지역에서 착공식이 진행되는 등 나름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난 8월12일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내놓은 구상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혁신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핵심 광물·소재·부품·장비를 아우르는 첨단 공급망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미래 산업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고, 경쟁 무대 또한 인공지능, 반도체 이 두 영역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핵융합, 양자기술,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경쟁에서 오늘의 한 걸음 차이는 훗날 100걸음, 또 1000걸음의 격차로 벌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에 신발과 의류 중심의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또다시 IT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성장 엔진을 끊임없이 고도화했던 것처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한 양대 핵심 축이 바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별 맞춤형 추진 전략을 세우고, 기획·투자·연구개발·실증 전반에서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소통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규제 혁신과 금융·조세 지원, 핵심 인재 육성 역시도 빈틈없이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또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마주할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지도를 그리는 데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성과에 대해서는 "중동전쟁 등 연초부터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변수와 위기가 안팎에서 불거졌는데, 국민들의 참여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가 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 그리고 수출, 국민소득 등 핵심 경제 지표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은 경제, 산업, 외교,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진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연말을 맞아 국정과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연초 국민께 약속드렸던 국정과제 그리고 정책의 추진 현황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이행이 미진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사업 속도를 배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올해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 '국민 체감 최우선' 원칙 아래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시간은 5200만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값진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재정 댐" vs 국민의힘 "미래파탄"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충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서 예산 심사
이연희 "채무 상환·미래 투자 병행"
나경원 "여유 자금은 채무 상환에"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9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시작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엿새 앞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하려면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상환이 우선이라며 기금 신설에 반대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관련 법안 의결을 기다려 왔지만, 재경위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법안 처리와 별도로 기금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댐'에 비유하며 세수가 늘 때 일부를 적립해 향후 세수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초과 세수와 세수 부족을 잇달아 겪으면서 단년도 예산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채무를 상환하면서 일부는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 세수가 올해 162조원, 내년에는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화 역할을 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지방재정을 보강할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인 제 입장은 미래대응기금 폐기"라며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빚부터 갚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 나랏빚을 내 기금을 조성하면 후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미래파탄기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금 재원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조작기소 특검 후보에 이임성·이정훈 추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각 후보 지명
국힘, '정치적 수단' 반발하며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조작기소 특별검사' 후보 추천 시한인 26일 각각 이임성·이정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로 이임성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2년생인 이임성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을 각각 두 차례 맡았다. 현재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변호사에 대해 "수사 현장을 직접 경험한 법조인"이라며 "법조계 안팎에서 쌓아 온 두터운 신망과 균형 감각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검찰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검이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정훈 변호사를 이번 특검으로 추천했다. 혁신당은 "이정훈 변호사의 오랜 법관 경력과 전문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특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이정훈 변호사는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혁신당은 이 변호사가 국가권력 행사의 적정성과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다룬 재판 경험을 폭넓게 갖췄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이번 특별검사의 책무는 국가형벌권이 헌법과 법률이 수여한 본연의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수사와 기소의 과정에서 사실 왜곡과 증거 조작, 권한의 남용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의 수사는 예단에서 출발해서도, 미리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도 안 된다"며 "오직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에 도달해야 하며 그 과정 또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추천하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차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기 도박판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탈옥 특검은 수사가 아니라 범죄 은닉을 위해서 급조된 공소 취소용 떴다방"이라며 "특검 후보자들이 이러한 파렴치한 재판 부정행위의 공범이 되고자 한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美 관세 압박에 정부 "한미 합의 유지돼야"

›› 1면 '對美 관세 15%'서 계속

정부는 미국이 최종 관세율을 결정할 때 한미 관세합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는 USTR 발표 전 미측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미측이 양국 무역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아너 더 딜(honor the deal)'이라는 표현을 쓰며 최종적으로 한국에 적용될 관세는 한미 관세협의를 존중하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한국이 약속한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와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담긴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만큼 최종 관세도 합의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국이 제시한 25% 상향 가능성이 실제 관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USTR이 한국의 산업정책을 과잉생산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USTR은 제조업 유지·확대를 위한 산업·업종별 계획과 국책은행의 우대금 등을 문제 삼았다.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 관련 정책도 조사 보고서에 담았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의 산업정책이 시장과 기업의 투자 수요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기업의 핵심 역량과 산업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 제조업이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구조적 공급과잉과는 다르며, 오히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USTR은 내년 1월 5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1월 25일부터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의견수렴과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정부는 과거 301조 조사에서도 최초 제안과 최종 조치 사이에 관세율 완화·강화나 적용 유예 등 변화가 있었던 만큼 업계와 학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 논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라며 최종 관세 결정 때까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2026 상생결제 우수기업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안전한 대금 회수와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확산에 노력하신 기업 및 유공자를 소개합니다.

우수 기업(1차협력사)

청호시스템 | 희망에어텍 | 미래코리아 | 한성전자 | 진양오일씰

우수 구매기관(공공)

경상남도 | 부산항만공사 | 국민연금공단

우수 구매기관(민간)

포스코퓨처엠 | 사조오양

유통 우수 기업

이마트

유공자(개인)

우수 구매기관(공공)
조하늘 (전북개발공사)
이보라 (한국중부발전)

우수 구매기관(민간)
김찬식 (현대트랜시스)
허동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유통 우수 기업
김동우 (공영홈쇼핑)

우수 기업(1차협력사)
박민홍 (주풍테크)

유관기관
이지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 현 (신한은행)
강지용 (NH농협은행)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입니다. 안전한 대금결제, 상생결제를 활용하세요.

문의전화 1670-0833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인뱅, 수익 다변화… 해외시장·자산관리·외부 플랫폼 승부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
대출 줄여 비이자이익 확대 속도
카카오, 누적 비이자수익 8883억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AI 생성 이미지.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비이자이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통적인 예대마진 중심의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자 해외 진출과 자산관리(WM), 플랫폼 제휴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기존 여수신 사업을 넘어 새로운 수익 기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3분기 누적 비이자수익은 8883억원으로 전년 동기(8351억원) 대비 6.4% 증가했다. 전체 영업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한다. 3분기에만 2988억원의 비이자수익을 거뒀다.

◆ 해외진출·WM·플랫폼 강화

카카오뱅크는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7일 몽골 디지털은행 M뱅크의 지분 15%를 확보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 지난 4월 M뱅크의 모기업인 MCS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카카오뱅크는 M뱅크와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금융상품과 신용평가모형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서 진출한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이어 몽골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벨트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자산관리 서비스 대중화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2일 선보인 펀드 서비스는 출시 열흘 만에 가입 계좌 5만좌를 돌파했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 혼합형, 금, 머니마켓펀드(MMF) 등 총 17종의 상품을 갖췄다.

특히 기존 금융상품의 복잡한 명칭 대신 투자 대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름을 제공하는 등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일상적인 은행 거래 고객을 투자 고객으로 전환해 수수료 수익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케이뱅크는 외부 플랫폼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무신사와 네이버페이, 동행복권, 컬리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입된 고객을 가상계좌 거래와 제휴 금융상품, 앱 내 광고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의 실명계좌 제휴를 연장한 데 이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는 등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기회도 모색하고 있다.

◆ 수익구조 다변화 불가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비이자 부문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대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총량관리로 취급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데다 대안으로 꼽히는 기업대출 역시 건전성 부담이 적지 않다.

실제 지난 10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연체율은 0.48%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9%로 대기업 대출 연체율(0.23%)의 3배에 달했다.

정부가 집단대출을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일부 영업 여력이 확보됐지만, 기존 시중은행에 비해 집단대출 영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는 수혜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장기 성장성을 좌우하는 변수는 확보한 고객 기반을 얼마나 다양한 수익원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고객 수와 대출자산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이 수익구조 다변화 경쟁으로 옮겨가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뱅 입장에서는 결국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이자수익을 늘리기란 쉽지 않다"며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방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01% '보합 문턱'

94주 연속 올랐지만 자치구 9곳 하락
광진구·영등포구 하락, 양천구 보합
성북·노원·서대문 중소형 위주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94주째 올랐지만 상승폭은 0.01%까지 줄었다. 가격이 내린 자치구는 9곳으로 늘었다. 강남3구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강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3일 기준 전주보다 0.01% 올랐다. 지난주(0.03%)보다 상승폭이 축소돼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세를 나타낸 곳은 9곳이었다. 광진구(-0.01%)와 영등포구(-0.01%)는 지난주 상승에서 이번 주 하락으로 돌아섰다. 양천구는 0.01%에서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하락세는 강남권이 이끌었다. 송파구가 잠실·문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0.50% 떨어졌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34%, 0.30% 하락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0.03%)와 성동구(-0.01%)가 약세를 보였다.

반면 중저가 단지가 많은 외곽 지역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성북구(0.33%)는 정릉·돈암동 대단지, 노원구(0.27%)는 상계·중계동 역세권, 서대문구(0.25%)는 홍제·홍은동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계약이 체결되는 등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이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5% 올라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10%, 지방은 보합(0.00%)이었다. 경기는 0.21%에서 0.17%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군포시(0.52%)와 용인 기흥구(0.52%), 화성 동탄구(0.50%)는 0.5% 이상 올랐다.

전세시장은 오름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9%,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14% 올랐다. 노원구(0.40%)와 금천구(0.29%), 성북구(0.27%)가 크게 올랐고, 서초구(-0.02%)는 반포·잠원동 구축 위주로 내렸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6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시삽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 최대규모 한남3구역 재개발 첫 삽

뉴타운 지정 23년 만에 착공식
5970가구 규모… 2030년 준공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모인 착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석자들이 삽을 들었다. 2003년 한남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23년 만에 한남뉴타운에서 처음으로 공사가 시작됐다.

서울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재개발 사업장인 한남3구역은 이날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한남3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주최한 착공식에는 오 시장과 권영세 국회의원, 김경대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준공 목표는 2030년 12월이다.

한남동·보광동 일대 약 38만6000㎡에는 지하 7층~지상 최고 21층, 123개 동, 5970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102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8개 블록에 13개 주택용지를 배치하고 초등학교와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부지 안에서 높낮이 차가 최대 58m에 이르는 만큼 지형과 남산·한강 경관을 고려해 주택과 기반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은 2009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기존 계획 재검토와 건축심의 보류를 거쳐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6년 6개월이 걸렸다. 서울시가 제시한 이 구간의 표준처리기한은 1년 7개월이다. 관리처분인가는 2023년 9월에 받았다.

시는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를 조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넓히고, 용도지역 상향과 준주거지역 내 주거비율 완화로 사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건축·경관·교통 등 8개 분야를 한꺼번에 다루는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약 4개월 만인 올해 9월 마쳤다. 시는 착공 이후에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남3구역 착공으로 올해 서울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18개 구역 약 2만3000가구로 늘었다. 연간 목표인 3만 가구의 75.8%다. 시는 건축물 해체를 마쳤거나 마무리 중인 7개 구역의 후속 절차를 관리해 12월 중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년과 2028년 착공 예정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처음 이곳의 미래를 그렸던 시장으로서 23년의 기다림 끝에 한남3구역이 첫삽을 뜨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사 기간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SC제일은행, 종로·여의도에 'WM센터'

차별화 자산관리 서비스 선보여
고객상담공간·세미나실 등 갖춰

SC제일은행이 금융·비즈니스 중심지인 서울 종로와 여의도에 자산관리 특화 지점 'WM센터'를 개점하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SC제일은행은 종로구 인사동에 '종로WM센터'를,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에 '여의도WM센터'를 각각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의 'WM센터'는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SC제일은행의 국내 자산관리 역량을 결합해 맞춤형 자산관리와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특화 지점이다.

종로WM센터는 금융·비즈니스 중심지인 종로와 강북 지역의 금융 수요를 겨냥했다. 고객 상담 공간과 세미나실, PB 라운지 등 시설을 통해 고객이 다양한 자산관리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SC제일은행 '종로구WM센터' 내부 전경. /SC제일은행

여의도WM센터는 자산관리와 기업금융 간 시너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자산관리(WM) 고객을 위한 전문 상담 및 프라이빗 공간과 기업금융 업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개인과 기업 고객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한다.

종로WM센터와 여의도WM센터에는 SC제일은행 소속 투자전략가들이 상주하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글로벌 시장을 아우르는 투자 인사이트와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KB국민은행-HUG

전세사기 제로 챌린지

KB국민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함께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수기 공모전 '전세사기 제로(ZERO)챌린지'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와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전세사기 피해 경험이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피해 사례 ▲피해 지원제도 이용 사례 ▲위기 극복 사례 ▲예방법 ▲제도 개선 방안이다. 이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내년 1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1편(300만원)을 포함해 총 10편에 상금 1200만원을 수여한다. /안상미 기자

삼성·SK, 中 YMTC 특허 협력 차세대 낸드플래시 개발 속도전

YMTC, 적층기술 특허 다수 보유
삼성·SK, 협력 통해 특허분쟁 예방
고단화·고성능 제품 차별화 전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낸드플래시 업체 양쯔메모리(YMTC)와 특허 협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공정 특허를 확보한 YMTC가 생산능력까지 확대하며 국내 기업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양사는 낸드 고단화와 고부가 제품을 통한 차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전문매체 닛케이아시아는 전날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YMTC와 특허 상호 사용계약(크로스 라이선스)을 맺고 낸드 적층 기술인 '엑스태킹(Xtacking)' 관련 기술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2025년 2월에도 YMTC와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닛케이아시아가 인용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YMTC가 적층 기술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 방지를 계약 체결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삼성전자는 닛케이아시아에 특허 계약 관련 언급을 피했고 SK하이닉스도 논평을 거부했다.

엑스태킹은 메모리 셀과 주변회로를 각각 다른 웨이퍼에서 제조한 뒤 하나로 접합하는 기술이다. 낸드 고단화에 따른 주변회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존 공정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규 설비투자와 제조원가 부담 등이 과제로 거론돼 왔다. YMTC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기술을 적용한 낸드를 양산해 왔다.

YMTC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협력 상대인 동시에 글로벌 낸드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는 경쟁자이기도 하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 기준 YMTC의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은 14%로 전년 동기(11%) 대비 3%포인트(p) 상승했다. 삼성전자(28%)와 SK하이닉스(19%), 미국 마이크론(15%)에 이어 일본 키옥시아(14%)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증권가에서는 YMTC가 내년 말까지 월간 낸드 웨이퍼 생산능력을 기존 20만장 안팎에서 25만장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내 메모리 자급률 상승이 국내 기업의 수요 기반과 가격 협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낸드 고단화와 고성능 제품 개발을 통한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 사전 프로그램에 따르면 양사는 내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차세대 낸드 연구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웨이퍼 본딩 기술을 적용한 500단급 11세대 TLC(트리플레벨셀) 낸드를 선보인다. 기존 400단급 제품과 비교해 칩당 저장용량은 1Tb(테라비트)에서 1.5Tb로 늘었다. 저장밀도는 42Gb/㎟로 50% 높아졌고 데이터 입출력 속도는 핀당 6.8Gbps로 약 21% 향상됐다.

SK하이닉스도 375단 10세대 TLC 낸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칩당 저장용량은 1Tb, 데이터 입출력 속도는 4.8Gbps로 에너지 효율을 기존 대비 60% 개선했다. 해당 낸드를 적용한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는 내년 상반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기업용 SSD 수요 확대는 국내 기업들의 고부가 낸드 사업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낸드 비트 출하량에서 기업용 SSD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5년 2분기 26%에서 올해 2분기 48%로 늘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낸드플래시 개발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판단해 YMTC의 기술 일부를 채택한 것으로 본다"며 "특허를 등록하면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라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낸드플래시 자체에 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제조 과정에서 적층 구조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일부 공정 기술에 해당한다"며 "국내 업체들이 낸드플래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특허를 활용하려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중심 사업 재편 속도

램프사업 분할… 전동화 등 역량 집중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램프사업 분할을 확정하고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낸다. 램프사업을 전문업체에 넘기고 전동화·전장·로보틱스 등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램프사업 물적분할 안건을 가결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81.5%가 찬성했다.

현대모비스는 내년 4월 1일 램프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할한 뒤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 OP모빌리티에 매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신설법인 지분 100%를 60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 램프사업의 지난해 매출은 약 1조원이다.

램프사업은 차종별 디자인에 맞춘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현대모비스는 사업을 전문업체에 맡기는 대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본과 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매각으로 확보할 자금도 미래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램프사업 분할·매각의 남은 절차도 마쳐야 한다. 분할에 반대한 주주는 다음 달 14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 금액이 2300억원을 초과하면 현대모비스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 매각 거래는 관련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매각 이후에는 미래사업에서 실제 공급처를 확보하고 매출을 늘리는 것이 과제다. 기술 개발에 투입한 자원이 수익으로 이어져야 사업 재편의 성과도 구체화할 수 있다. /이승혁 기자 sh95@

HS효성, 안성훈·성낙양 사장 승진

12명 정기 임원인사… 신규 선임 3명


안성훈 HS효성 사장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사장

HS효성이 그룹 출범 이후 조직 안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한 인재를 중심으로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HS효성은 안성훈 HS효성 대표이사 부사장과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 부사장을 각각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총 12명 규모의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임원 선임은 3명이다.

이번 인사에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강조해 온 성과주의와 가치경영 철학이 반영됐다. 지난 2024년 효성그룹에서 분할된 이후 조직의 조기 안정화와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신규 사업 진출 등에 기여한 인재를 중용했다.

1971년생인 안성훈 신임 사장은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를 거쳐 지난 2000년 효성그룹에 입사했다. 이후 효성중공업 전력PU(퍼포먼스유닛) 글로벌 영업 총괄과 전력PU 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4년 HS효성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룹 출범 이후 경영을 이끌며 조직 안정화와 사업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낙양 신임 사장은 맥킨지와 액센츄어, 야후코리아 대표, 두산글로넷 대표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효성 경영혁신실장으로 합류했다. HS효성그룹 출범 이후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를 맡아 타이어보강재 사업과 미래전략 부문을 이끌어 왔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 진출을 주도하며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했다.

이창엽 HS효성 재무본부장은 부사장으로, 정종훈 HS효성첨단소재 탄소재료 PU장은 전무로 각각 승진했다. /차현정 기자

LG엔솔, 美 원통형 배터리 생산 초읽기

현지 채용확대 등 생산 준비 마무리
물류비 완화·고객 대응력 향상 기대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중인 미국 애리조나 원통형 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의 연내 가동을 앞두고 현지 채용을 늘리는 등 생산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생산이 시작되면 그동안 오창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던 46시리즈(지름 46㎜) 원통형 배터리를 현지에서 바로 공급할 수 있어 물류비 부담이 줄고 북미 고객사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주 퀸크릭 공장의 내년 1분기 중후반 공식 개장을 목표로 채용과 신규 인력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채용한 인원은 300명을 넘었고,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고용 인원은 최대 약 1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46시리즈 생산라인은 공식 개장에 앞서 연내 가동할 계획이다.

퀸크릭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첫 원통형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46시리즈 생산에 집중한다. 연 36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목표로 기존 대비 설비 효율을 50% 높인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가동이 시작되면 지난해 말 양산에 들어간 오창 공장과 함께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46시리즈를 생산하게 된다.

퀸크릭 공장에서는 4680부터 46120까지 다양한 규격의 46시리즈를 생산해 북미 완성차 업체의 수요에 대응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애리조나 법인을 통해 한 완성차 업체와 연 10GWh 이상 규모의 다년 공급 계약을 맺었고 리비안과는 신형 SUV 'R2'에 탑재할 4695 배터리를 5년간 67GWh 공급하기로 했다. 46시리즈 전체 수주 잔고는 440GWh를 넘고 다수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추가 수주도 논의하고 있다. 내년 말에는 하이브리드차(HEV)용 2170 배터리 양산도 이 공장에서 시작할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 삼성SDI는 국내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해 미국 고객사에 초도 공급했지만, 미국에서는 원통형을 생산하지 않는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공장 일부 라인은 ESS용으로 돌렸고 GM과의 합작공장도 단독 공장으로 전환해 각형 배터리와 ESS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SK온은 46파이 배터리 개발을 마쳤지만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고 미국 공장도 파우치형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현지 생산에 나서면서 향후 수요 회복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고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바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완성차 업체들과의 추가 수주 협상에서도 강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고객사의 삼원계 배터리 채택 규모와 중국산 배터리 배제 움직임이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국내외 메모리사업 조직 재정비

황상준 메모리사업부장 지휘 권한 집중
미주법인 총괄에 윤하룡 부사장 내정

삼성전자가 메모리사업부장에게 개발 조직의 지휘 권한을 집중하고 제조기술과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을 교체하는 등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후속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확정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메모리 개발 의사결정 체계의 간소화다. 기존 메모리개발담당 직책을 폐지하고 D램개발실과 플래시개발실, 솔루션개발실을 황상준 메모리사업부장이 직접 관할하도록 했다. 황 사장은 D램개발실장도 계속 겸직한다.

차세대 메모리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솔루션개발실 산하에 로직개발팀도 신설한다. D램과 낸드플래시, 솔루션 간 기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메모리 제조기술센터장에는 신경섭 부사장이 내정됐다.

해외사업 조직도 재정비한다. 반도체 미주법인(DSA) 총괄에는 현지 메모리 마케팅팀장을 맡았던 윤하룡 부사장이 내정됐다. 지난 20일 사장단 인사에서 조상연 전 미주법인장이 시스템LSI사업부장으로 이동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미주법인은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주요 빅테크를 담당하는 핵심 해외 조직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로 현지 영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회사는 미국 생산거점의 책임자도 교체한다.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오스틴법인(SAS) 법인장에 이화성 부사장을 내정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주병기 "大·中企 양극화 구조적 문제… 불공정 관행 근절"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人과 소통 간담회

大·中企 상생환경 조성에 역량 집중

金 "수출 1조 달러에도 양극화 심화"
朱 "재벌 친족 경영권 세습 청산"
문어발식 사업 확장도 끝내야"

업계, 乙 협상력 강화 입법 촉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건의



공정거래위원장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앞줄 왼쪽 5번째)주병기 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도 도입, 강자의 시장력 견제, 약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 자리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앙회장을 비롯해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주력 수출 산업의 대기업과 그 대기업이 소속된 재벌 대기업 집단이 성장의 성과를 독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위원장의 이같은 인식은 중소기업계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정말 자랑스럽고 반가운 뉴스가 들리지만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안타깝게도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난 2분기에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19%가 넘었지만 중소기업은 4분의 1 수준인 5% 정도에 그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꼭 필요한 것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주 위원장에게 ▲을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제정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인센티브 확대 및 주요 원재료 합산기준 명확화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단축 ▲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 도입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14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제도 개선을 당부하신 만큼 이 문제는 올해 안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줬으면 한다"면서 "입점업체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고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매출은 GDP의 90%에 가깝다. 대기업 집단의 울타리 안에서 이뤄지는 내부거래 비중도 GDP의 3분의 1정도다.

주 위원장은 "재벌 기업 집단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걷어내고 국민 경제의 공급망을 키우는 건설적 과업에 나서야 할 때이고, 친족이 경영권을 세습하는 관행도 청산해야한다"면서 "주력 대기업과 연관성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업종으로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는 문어발식 확장 시대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 (대기업)계열사가 독차지하던 영역이 시장에 열리면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 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또 지난8월부터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연료·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했다. 기술탈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에 대한 공정위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 가맹 분야에선 가맹점 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내달 시행된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지급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도 내년 10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55개국 참여

내달 9~11일 코엑스서 역대 최대 규모
AI 비즈매칭 도입해 투자 연계 강화

한국이 만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에 올해 55개국이 참여해 창업 생태계를 교류한다. 기조연설은 인터넷 강국인 에스토니아의 경제산업부 장관이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에서 '컴업 2026 미디어데이'를 열고 오는 12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6'의 미래상과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COMEUP은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한데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축제다. 올해 핵심 주제는 '창업가의 발견과 성장'이며, 공식 표어는 '언리시 디 언신(Unleash the Unseen)'이다. 이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창업가들이 컴업(COMEUP)을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와 세계의 표준을 선도하는 대체 불가한 혁신가로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컴업2026'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리나 바흐트라스(Liina Vahtras) 경제산업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에스토니아에서 스타트업과 정부를 오가며 쌓은 창업 분야 경험과 통찰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선 컴업 참여국이 지난해 46개국에서 55개국으로 늘고 총 463개의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기관 등이 전시에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인공지능(AI) 비즈매칭(Biz Matching) 추천 체계를 도입하고 비즈매칭(Biz Matching)을 정밀매칭과 자율매칭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중기부가 '모두의 창업'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창업 대중화를 이끈 만큼 일상 속의 창업가와 미래의 잠재적 창업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대폭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유공자 포상

삼성D 장철웅 부사장 은탑훈장
상생협력 유공 정부포상 17점 수여

'2026 올해의 상생기업대상'에서 최고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협력사 원자재 거래 규모를 7조원으로 늘리고 3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운영과 12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삼성디스플레이 장철웅 부사장에게 돌아갔다.

동탑산업훈장은 4조원 규모의 상생결제 운영과 동반성장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 한국서부발전 왕민석 실장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1000개사 이상의 협력사 스마트공장 구축과 금융지원 등을 추진한 현대자동차 정희섭 상무가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26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2026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기념식'을 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상생협력 유공자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7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총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대통령표창은 한국전력공사, KB금융지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4개 단체와 포스코 이승기 상무, 메타튠 김재훈 대표,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동윤 부장이 각각 받았다.

'2026 올해의 상생기업대상'은 올해 동반성장주간 대표 행사로, 한성국 국무총리, 장인화 동반성장위원장,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국회 및 경제단체 관계자, 포상 수상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기념식을 국무총리 참석 행사로 격상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행사 명칭을 기존 '동반성장 유공 포상'에서 '올해의 상생기업대상'으로 변경했다. /김승호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AI 가전 서비스 역량 강화

서비스 기술경진·안전혁신대회 개최

삼성전자서비스가 인공지능(AI) 가전 확산에 대응해 엔지니어의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 AI를 기반으로 제품 간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개별 제품의 수리뿐 아니라 여러 기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서비스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CS 아카데미에서 '서비스 기술경진 및 안전혁신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엔지니어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점을 뒀다. 대회는 수리 경진 5개 종목과 서비스·안전 혁신 사례 경연 5개 종목 등 총 10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수리 경진은 냉장고·식기세척기 등 주방가전부터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TV,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엔지니어들은 실제 고객 서비스 현장과 동일하게 구현된 환경에서 제품 점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평가받는다.

특히 올해는 제품 간 연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능력이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연계한 AI 활용 능력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CC, 자율주행 도장로봇 스마트건설 기술력 입증

KCC가 건설 현장의 작업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로봇 기술로 인정을 받으며 스마트 건설 시장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KCC는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건설 EXPO' 시상식에서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 최우수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KCC는 자율주행 도장로봇 'SMART CANVAS(스마트 캔버스)'로 단지·주택 분야 1위를 차지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김승호 기자

에스원, 김송범 경영지원담당 부사장 승진

2027년 정기 임원인사 4명 발탁

에스원이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경영성과 창출과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인재를 발탁했다. 에스원은 김송범 경영지원담당 부사장(사진)을 비롯해 부사장 1명, 상무 3명 등 총 4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각 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승진시켰다. 특히 신규 시장 개척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혁신을 이끌 인재를 중용했다.



김송범 신임 부사장은 1974년생으로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에스원 경영지원그룹장과 경영지원팀장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경영지원담당을 맡고 있다. 상무 승진자에는 김광조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백정우 연구개발(R&D)센터 통합솔루션팀장, 염대호 시큐리티사업부 시큐리티지원팀장이 이름을 올렸다. 백 신임 상무는 지능형센서랩장과 인프라R&D팀장을 역임했으며 염 신임 상무는 서울지원그룹장과 강원사업팀장 등을 거쳤다. /차현정 기자 hyeon@

우수조달 제품지정 (제 2026120호)

29 AI INNOVATION

All-in-One AI/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LLaMON AX AI플랫폼
- Advanced RAG Graph RAG
- LLM 모델 최적화 및 튜닝 LLM/MLOps
- 에이전트빌더 MCP/A2A
- Document AI
- VLM OCR Voice
- 디지털집현전 AI 민원상담 AI
- 복지/예산 AX 복지상담·안내 예산 심의 등

MESIM AX AI/연계통합플래폼 우수조달제품
- MCP 게이트웨이
- API 게이트웨이
- ESB 연계통합
- DevOps 개발운영 자동화
- 망간 연계
- 모니터링 Observability

KLEVER 디지털트윈 휴먼플랫폼
- 자율주행 교통
- 도시 산단 건설
- 철도 항공 드론
- 디지털휴먼 플랫폼
- 레이더검지 AI영상검지

조달우수제품 AI/연계통합제품(MESIM AX)을
수의계약 또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간편하게 구매가능

METABUILD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2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교통자율주행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19, 701호
T 02.598.3327 | **F** 02.598.3329 | **Email** support@metabuild.co.kr **www.metabuild.co.kr**

5G SA 시대 앞두고… 알뜰폰, 품질저하·가격경쟁 '이중고'

〈단독모드〉

통신3사, 올해 말까지 5G SA 전환
LTE 주파수 대역 축소에 속도↓
이용자 이탈 유도… 경쟁력 약화
가입자 유치 위한 가격 경쟁 '치열'
통신3사 중저가 요금제 확산도 부담



서울 시내의 휴대폰 전문점에 알뜰폰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알뜰폰 업계가 이중고에 빠졌다. LTE 주파수 일부가 5G용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에 알뜰폰의 LTE망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통신 3사의 중저가 요금제 확대는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마저 흔들고 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파수 재할당 조건에 5G SA 전환 의무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올해 말까지 기존에 구축한 5G 무선국을 모두 SA 코어망에 연동해야 한다.

이에 LTE 의존도가 높은 알뜰폰 사업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당시 LTE 주파수 2.1GHz·2.6GHz 중 1개 블록을 조기 반납하거나 5G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길을 통신 3사에 허용하면서다.

문제는 단계적인 품질 저하와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주파수 대역이 축소되면 혼잡도가 높은 장소에서 데이터 속도가 느려지는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이는 LTE망 이용자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결국 5G 요금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알뜰폰 사업의 핵심인 초저가 요금제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망 사용 비중은 LTE가 압도적으로 높다. 전체 알뜰폰 휴대폰 회선의 약 92%가 LTE망을 이용하는 반면, 5G망 비중은 7% 안팎에 그친다.

알뜰폰 사업자가 LTE망을 선호하는 이유는 도매대가율에 있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 3사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때 소매요금의 일정 비율을 나누는 수익배분율 방식을 적용받는다. LTE 도매대가율은 통상 40~50% 수준으로 5G(60% 안팎)보다 낮다. 5G 상품을 출시할수록 망 이용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5G 요금제를 늘리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알뜰폰은 가입자 규모를 키워야 고정 운영비와 판매관리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박리다매 구조다. 소비자가 낸 요금에서 운영비와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뒤 통신 3사에 망 도매대가까지 지급하면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1명당 월평균 요금은 1만7570원이다. 이통 3사 평균인 3만6050원의 절반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으로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5G 전환은 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업계 내부 경쟁도 치열하다. 올해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 3사 자회사 5곳을 포함해 60곳에 달한다. 정부가 LTE 서비스를 도매제공 의무대상에 포함한 2013년과 비교하면 사업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한 할인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신 3사의 중저가 요금제 확대도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흔드는 요인이다. 올해 5G와 LTE 구분을 없앤 통합요금제가 등장하면서 통신 3사도 데이터 소진 후 최대 5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3만원대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알뜰폰이 1만원 이하 초저가 요금제로 맞서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경쟁력은 예전만 못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알뜰폰협회는 알뜰폰 사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사업자뿐 아니라 금융권 등 대규모 알뜰폰 사업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LG U+, 전국 버스에 최신 와이파이 7 구축

기존 와이파이比 대역폭 2배 넓혀
전송 속도 높이고 지연 시간 줄여
시내버스 3.2만대 장비 전면 교체



LG유플러스 직원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전국 버스에 최신 와이파이 기술을 도입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등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전국 시내버스 3만2857대에 최신 와이파이 7 기반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와이파이 7은 기존 와이파이 6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최신 와이파이 기술이다. 대역폭을 2배 이상 넓혀 전송 속도를 높이고 지연 시간을 줄였다.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와 157개 기초지자체, 434개 운수사의 시내버스 3만2857대에 설치된 기존 와이파이 장비를 최신 와이파이 7 장비로 전면 교체했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버스 와이파이 상태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NMS)을 구축해 전국 단위 서비스 운영 효율을 높였다. 전국 버스의 통신 상태와 장비 이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 발생 시 원격 점검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움직이는 버스에 최적화한 장비도 적용했다. 고속 주행에 따른 진동과 지속적인 전압 변화 등 일반적인 와이파이 환경과는 다른 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장비를 설계했다. 연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장비가 자동으로 재부팅해 서비스를 복구하는 기능도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다.

보안 강화를 위해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와 분리된 버스 공공와이파이 전용 5G 통신망도 구축했다. 버스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별도의 통신망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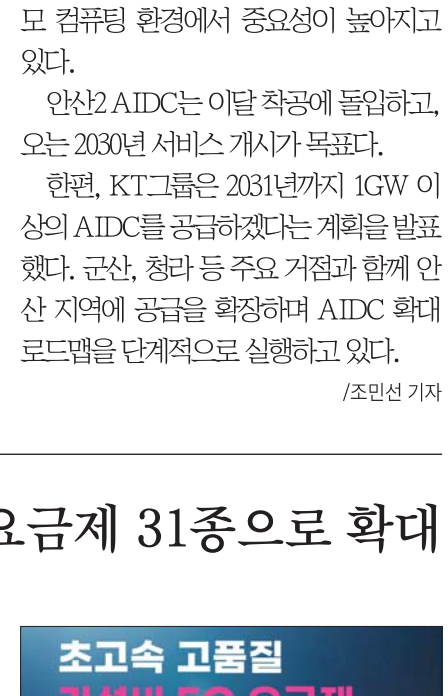
와이파이 인증 체계를 통합해 이용자 편의성도 개선했다. 버스를 갈아탈때 다른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더라도 다시 인증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인증서버도 기존 2대에서 6대로 3배 확대해 출퇴근 시간대 등 동시에 많은 이용자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접속 요청을 원활히 처리한다.

한편, 이번 망 구축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및 이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LG유플러스는 전국 망 구축을 시작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msjo@

KT클라우드, 안산에 110MW AIDC 조성

안산 권역 60MW 규모 추가 확보
전층 액체냉각 대응 인프라 적용


KT클라우드 안산2 AI데이터센터 조감도. /KT클라우드

KT클라우드가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안산 권역에 추가 부지를 확보해 총 110MW 규모의 수도권 AIDC 핵심 거점을 조성한다.

KT클라우드는 안산 권역에 60MW 규모의 '안산2 AI 데이터센터' 공급 거점을 추가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T그룹이 추진 중인 2031년 1GW AIDC 공급 전략의 일환이다. KT클라우드는 싱가포르 글로벌 자산운용사 케펠의 국내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해 안산 클러스터의 대규모 AI 인프라 공급에 활용한다.

안산2 AIDC는 총 수전용량 60MW, 연면적 약 5만2622㎡(1만5918평),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구축 중인 안산1 AIDC와 약 2.5km 거리에 있다.

회사는 두 거점을 연계해 총 110MW 규모의 AI 인프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안산 권역을 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초기 인프라 도입부터 사업 성장에 따른 단계적인 용량 확대까지 유연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안산2 AIDC 전층에는 액체냉각 대응 인프라를 적용한다. 액체냉각은 고성능 GPU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로, AI 학습·추론 등 대규모 컴퓨팅 환경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산2 AIDC는 이달 착공에 돌입하고, 오는 2030년 서비스 개시가 목표다.

한편, KT그룹은 2031년까지 1GW 이상의 AIDC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 청라 등 주요 거점과 함께 안산 지역에 공급을 확장하며 AIDC 확대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LG헬로비전-CJ ENM 막판 합의… 방송중단 위기 '일단락'

tvN 스포츠 등 4개 채널 정상 송출

채널 송출 중단 위기까지 치달았던 LG헬로비전과 CJ ENM의 갈등이 양사의 막판 합의로 일단락됐다.

2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LG헬로비전 케이블TV에서 송출이 중단될 예정이었던 CJ ENM의 tvN 스포츠, tvN 쇼, 중화TV, 투니버스 등 4개 채널이 정상 송출됐다.

전날 CJ ENM이 법원에 제출한 방송 송출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채널 중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와 양사의 막바지 협상 끝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방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피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2민사부는 지난 25일 CJ ENM이 LG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방송 송출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 종료를 위한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수리한 데 이어 법원도 송출 중단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채널 중단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였다.

LG헬로비전은 "방통위 중재로 시청자 보호를 위해 양사가 상호 양보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전했다. CJ ENM도 "방통위 중재로 양사가 합의에 이르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청자 권익 보호와 유료방송 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채널 송출 재개로 콘텐츠 공급을 둘러싼 갈등은 봉합했지만, 구체적인 사용료 산정 방식과 계약 기간 등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민선 기자

kct '티플러스', 5G 요금제 31종으로 확대

月 4500원부터 5만원대까지 다양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은 알뜰폰 브랜드 '티플러스'의 5G 요금제를 기존 10종에서 31종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기반으로 데이터 제공량과 가격대 등에 따라 요금제를 세분화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대표 상품은 두 가지다. 먼저 월 4500원 요금제는 데이터 10GB를 제공하며,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평생 할인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월 1만1900원 요금제는 데이터 95GB를 제공한다.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대 3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할인 기간은 7개월이며, 이후 가격은 5만600원이다.

이 밖에 평생 할인 요금제 6종과 밀리의 서재 등 제휴 서비스 혜택을 결합한 요금제도 선보인다.

/조민선 기자

우량채엔 뭉칫돈, 비우량채엔 찬바람… 회사채 시장 양극화

신용등급별 자금 조달 격차 커져
비우량기업, 투자금 확보 난항 겪어
BBB급 이하, 전년비 68.4% 감소


돈이 우량 회사채로만 몰리면서 회사채 시장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AI로 생성한 이미지

지난달 27일 KCC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에서 모집예정액(2000억원)의 6.9배 자금이 몰렸다. 가산금리(스프레드)는 2년물이 개별 민평금리보다 9bp(1bp=0.0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3년물도 민평 대비 9bp 낮게 형성됐다. SK렌터카는 모집예정액(1000억원)의 4.27배 자금이 몰렸다. 하지만 3년물은 민평 대비 29bp 높게 형성됐다. 회사가 제시한 공모 희망 금리 범위인 ±30bp의 상단이다. 둘의 차이는 SK렌터카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다는 것이다.

돈이 우량 회사채로만 몰리면서 회사채 시장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채엔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채권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비우량 채권을 팔려면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한다는 뜻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5일 기준 3년 만기 회사채 AA- 등급과 A- 등급 간 금리 차(스프레드)는 1.114%포인트였다. 이 스프레드는 작년 말만 해도 1.094%였다. 한진해운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은 2017년 2월의 0.717%포인트다. 코로나 발병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2021년 3월에도 스프레드는 0.3%포인트대였다.

AA-와 BBB- 등급간 스프레드는 5.840%였다.

우량기업 회사채는 자금 블랙홀이다.

LG유플러스(AA+)는 지난달 수요예측에서 모집예정액(1500억원)의 11배(1조7100억원)가 넘는 자금이 몰렸다. 특히 3년물 가산금리(스프레드)는 1350억원까지 민평 대비 3bp 낮게 형성됐다. 회사채시장에서 1000억원을 조달하려던 GS(AA0) 수요예측에는 13배(1조3700억원)가 넘는 자금이 몰렸다. 삼양홀딩스(AA-)는 모집예정액(1000억원)의 5.6배 자금이 몰렸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뭉칫돈이 몰린 고려아연(AA0)은 발행 금액을 두 배(3000억원)으로 늘렸다.

'A'등급에도 훈풍이 불었다. 파라다이스(A+)는 6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요예측에서 3배가 넘는 투자 수요를 확보했다. 롯데렌탈(A+)은 수요예측에서 총 644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모집액(1500억원)의 약 4.3배다.

금융권은 엇갈린 모습이다. 'AA-' 등급인 하나금융지주는 수요예측(3700억원)에 5150억원의 뭉칫돈이 몰렸다.

한화생명(AA+)은 무보증 후순위사채 수요예측(4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최대 증액 발행 한도 8000억원에 못미친다. 발행금리도 희망금리 최상단인 연 5.30%로 확정됐다

증권사들은 '품절남'이다. NH투자증권은 수요예측(1300억원)에서 총 1조1800억원의 기관 자금이 몰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수요예측(3000억원)에서 총 1조8150억원의 수요를 확인했다. LS증권(A0)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에서 모집예정액(700억원)의 7배(4640억원) 가까운 자금이 몰렸다.

반면 'BBB' 이하 등급 회사채는 찬밥 신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이랜드월드(BBB0)의 2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이후 두 달간 BBB급 이하 회사채 발행은 한 건도 없었다. 올해 'BBB'급 이하 기업 가운데 공모채 수요예측에 나선 기업은 10곳으로 최근 5년간 최저였다.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총 610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330억원) 대비 68.4% 감소했다. 기관투자가의 BBB급 회사채 수요도 감소했다. 올해 발행사 10곳 중 5곳에서 미매각이 발생했다. 이랜드월드는 200억원 모집에 180억원의 주문을 받는 데 그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주주환원 확대 기대

잔여 매입 가능 금액 총 15조5086억
자사주 매입 여력, 일부 대형주 몰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와 소각 의무화가 맞물리면서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와 소각 의무화로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지난해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입 여력과 기존 보유 물량이 일부 대형주에 집중돼 있어 기업별 참여와 소각 결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6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자사주 매입 잔여 한도가 있는 상장사는 181곳으로 집계됐다. 직접 취득 기업은 59곳,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기업이 122곳이다. 이들의 잔여 매입액은 총 15조5086억원이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잔여액이 13조4066억원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3개월간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직접 취득은 신고한 물량 전체를 하루에 매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도 발행주식 총수의 1% 제한이 사라지고 신탁재산 총액 범위에서 매수 주문이 가능해졌다. 다만 제도 완화의 효과가 증시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다른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SK하이닉스에 잔여 매입 한도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 여부도 주목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보유분도 2027년 9월까지 소각하거나 예외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는 기업들의 기존 자사주 보유 목적과 처분계획이 주주들의 평가를 받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상당한 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주가 수준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며 "현금 여력이 있는 기업 가운데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곳도 있을 것이고, 매입 한도 완화는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3년 사이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91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소각액은 총 61조75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소각액(24조910억원)의 2.6배에 달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두나무,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최초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만든 인공지능 경영시스템(AIMS·Artificial IntelligenceManagementSystem) 국제표준이다. AI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은 물론,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하는 조직이 갖춰야 할 관련 정책과 책임 체계, 위험 관리,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등 전사적인 관리 체계를 요구한다.

두나무는 업무에서 AI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정보 유출이나 부정확한 결과 활용 등 AI 활용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인증을 추진했다. 업비트 관련 업무에서 AI를 도입하고 활용할 때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성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관리 절차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으로도 기술 환경과 업무 활용 방식의 변화에 맞춰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인증은 기존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업무연속성 관리 체계에 AI 경영시스템을 추가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업비트는 2018년 정보보안(ISO/IEC 27001), 클라우드 보안(ISO/IEC 27017),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ISO/IEC 27018) 등 3개 부문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2021년 개인정보보호(ISO/IEC 27701), 2023년 업무연속성(ISO 22301) 인증을 추가하며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번 ISO/IEC 42001 인증을 통해 보유한 ISO 인증은 총 6종으로 늘어났다.

/신하은 기자

삼성증권, 부사장 3명·상무 3명 승진

2027년 정기 임원인사

삼성증권이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고 부사장 3명과 상무 3명 등 총 6명을 승진시켰다. 박종문 대표이사 체제는 유지된다.

삼성증권은 26일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백승목·윤석모·한성주 상무를 부사장으로, 구자성·김준식·정명지를 상무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부사장 3명, 상무 3명 총 6명이 승진했다.

백 신임 부사장은 경영관리팀장과 경영관리담당을 거쳐 리스크관리담당을 맡았다. 2022년 리스크관리담당으로 상무에 오른 뒤 지난해 11월부터 디지털자산관리본부장을 맡아 비대면 고객 자산관리 사업을 이끌고 있다.

윤 신임 부사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 삼성증권에 합류한 리서치 전문가다. 에쿼티부문장을 거쳐 2018년 말부터 리서치센터를 이끌고 있다.

한 신임 부사장은 홀세일과 글로벌마켓, 에쿼티 등 주요 영업 부문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지난해 11월부터 S&T부문을 맡아왔다.

상무 승진자인 구 신임 상무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담당해 왔으며, 김 신임 상무는 프로젝트금융 등 대체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정 신임 상무는 리서치센터 투자정보 업무를 거쳐 채널 관련 전략을 담당해 왔다.

삼성증권은 "이번 임원인사는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따라 회사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성과 우수 인재를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사업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도 이날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고 이시완 대체투자부문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상무 승진자는 김경식 디지털마케팅본부장과 송명근 기관OCIO선임본부장 등 2명이다.

/신하은 기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6곳 직권말소

금감원, 99곳은 이미 폐업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 1863곳을 전수 점검해 부적격 업체 106곳의 신고를 직권말소했다. 대상 업체의 대부분은 폐업한 뒤에도 신고 명단에 남아 있던 곳이다. 투자자가 신고 여부만 보고 영업 중인 업체로 오인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비다.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폐업 정보와 관계기관의 법령 위반 이력을 확인하고, 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말소 대상을 확정했다.

말소 사유별로는 폐업이 99곳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은 9곳, 5년 이내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받은 업체는 1곳이다. 사유가 겹치는 업체 3곳을 제외하면 실제 말소 업체는 106곳이다. 지난해 직권말소된 105곳과 비슷한 규모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가를 받고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일반적인 투자 의견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신고제로 운영되지만 고객 한 사람의 사정에 맞춘 '1대1 투자자문'은 할 수 없다. 금감원 신고 사실이 자문 능력이나 수익률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이라면 임원도 재진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말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말소한 업체의 신고사항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삭제하고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aT, 인도서 대규모 K-푸드 행사… 신시장 진출 전략 본격화

'델리 K-푸드 유니버스' 운영
만두·호떡 등 다양한 한식 선봬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 확인"



인도 뉴델리 소재의 한 대형쇼핑몰에 조성된 체험형 복합 팝업스토어 '2026 델리 K-푸드 유니버스' /aT

K-푸드의 신시장 진출 확대 전략·구상이 현지에서의 본격 실행에 돌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인도와 중동, 중남미 지역을 3대 수출 신시장으로 꼽고 있다. 이달엔 인구대국 인도에서 열흘간의 대규모 행사를 기획·개최했다.

aT는 지난 13~22일(현지시간) 기간 인도 뉴델리 소재 대형쇼핑몰인 퍼시픽몰 타고르가든에서 체험형 복합 팝업스토어 '2026 델리 K-푸드 유니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방문객 총 8만3000여 명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신시장인 인도 공략을 위해 위해 2024년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인도 최대 명절인 디왈리축제 직후 1000㎡(302평) 규모의 야외광장을 활용했다. K-푸드의 시식·판매부터 한복, 전통놀이 등 한국문화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한옥과 청사초롱을 활용해 한국의 미를 살린 행사장은 ▲판매마켓존 ▲K-주막(식음료 체험존) ▲마켓테스트존 ▲K-컬처존 ▲쿠킹존 ▲플레이존 ▲상설무대 등으로 구성됐다. 판매마켓존에는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인도 현지 수입·유통업체 5개사가 입점해 라면, 떡볶이, 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했다. K-주막에서는 막걸리와 함께 닭강정, 김치전, 만두, 호떡 등 다양한 한식을 선보였다.

aT는 채식 인구 비중이 높은 인도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김밥·떡볶이·잡채·김치볶음밥 등을 일반메뉴와 비건(완전채식) 메뉴로 나눠 조리 시연 및 무료 시식을 진행했다. 방문객이 구매한 라면을 직접 끓여 먹는 체험도 큰 호응을 얻었다.

마켓테스트존에서는 수출전략형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 중인 국내 5개 기업이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들 기업은 김치분말, 차류, 음료 등 5개 제품을 전시했다. aT는 향후 소비자 설문 결과를 참조해, 이들 기업들과 인도 진출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또 K-컬처존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해 한국 음식 관광 콘텐츠와 김,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했다. 한국식 메이크업과 개인별 적합 색상 진단, 딱지치기·공기놀이·제기차기 등 문화 체험도 인기를 끌었다.

상설무대에서는 매운맛 도전, 김밥 말기 대결, K-뷰티 강연, 쿠킹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K-팝 커버 댄스 대회'와 복면 노래 경연대회 'K-푸드 마스크 싱어'에는 각각 59개 팀과 19명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다. 태권도 시범과 인도 전통무용, K-팝 아이돌 DIVA-X의 단독 콘서트도 관심을 끌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인구 14억6000만의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인도에서 K-푸드와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인도시장 진출과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인도시장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라면(2339만 달러·+53.9%)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1.2% 늘어난 6818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기후부, 제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높인다

2035 제주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

탄소중립 이행안·추진전략 공유
내달 소비자 참여형 요금제 도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제주시 헤리티크 제주에서 열린 '2035 제주 탄소중립 섬'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25% 수준인 제주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RE100' 청사진을 내놨다. 발전 설비 확충과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를 병행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전력 시장 가격 변동을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요금제를 도입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인다.

기후부는 26일 오후 제주시 오등동 헤리티크 제주스칼라홀에서 제주도와 공동으로 '2035 제주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을 열고 탄소중립 이행안과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우선 2035년까지 제주에 태양광 3GW와 풍력 2.5GW 등 총 5.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전력계통 전반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화력발전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설계 수명이 끝나는 한림복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는 내년 말 가동을 멈추고, 제주화력 등 바이오중유 발전기 3기는 2030년 말 순차 폐지된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을 막기 위해 동기조상기 등 계통안정화 설비와 그리드포밍(Grid-Forming) ESS를 도입해 안정성을 검증한다. 계절별로 3~7기씩 운영되던 필수운전 발전기 역시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난방과 온수 등 열 수요와 수송 부문의 전기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누적 20만대를 보급해 열 수요를 전기로 대체한다.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도록 내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는 제주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는 히트펌프 설치를 의무화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부터 제주에서 신규 등록되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 2035년까지 누적 21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전국 첫 신차 100% 전기차 전환 추진에 맞춰 구매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전력 여유 시간대에 충전하는 스마트 충전(V1G)과 차량 배터리를 전력망에 활용하는 양방향 충·방전(V2G) 실증도 진행한다.

단기 실행 과제로 다음 달부터 '탐라는 전기예보'가 시행된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 전력시장 가격(SMP)이 0원 이하로 내려가면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해당 시간대 전기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이용하는 제주 주택용 고객과 전기차 충전 요금 고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을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녹색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며 "정책 지원과 제도 개편을 병행해 제주의 햇빛과 바람이 도민의 소득이 되고 에너지전환이 생활 속 일상이 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노사발전재단, 취약노동자 보호 방안 모색

'노동권익 콘퍼런스 워크 넥스트' 개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노사발전재단은 26일 이날 서울 모처에서 '2026 노동권익 콘퍼런스 워크 넥스트'(WORK NEX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일하는 방식과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재단은 행사 주제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우리의 일은 어떻게 달라질까'로 내걸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의 권리,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부문에서, '일하는 시민의 시대, 권리의 틀을 다시 짜다'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정 교수는 전통적 임금근로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할 법적 체계는 부재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꼽았다.

김창환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장이 '우리의 일, 어떤 변화를 상상해야 하는가' 부문에서, 지난 3년간 취약노동자 원탁회의에서 축적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또 당사자 대화에서는 배달라이더, 방송작가, 번역가, 영상창작프리랜서, 청년활동가 등이 일터에서 겪은 부당한 계약관계, 일감 확보의 불확실성, 업무괴롭힘과 인격침해 등 어려움을 공유했다.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호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명칭을 정하는 공모에서는 '노동권리e음'이 선정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미령 장관, 토마토 과실바이러스 피해농가 점검

지원방안·방역대책 등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토마토 과실바이러스(ToBRFV) 피해농가를 찾아, 농작물 피해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과 지원방안·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익산 춘포면 소재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피해농가를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피해농가의 의견을 듣고 유관기관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 농장주는, 농장 폐원 시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휴경기간 소득 공백을 고려한 손실 보상을 요청했다.

이에 송 장관은 "피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및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실시할 것"이라며 "수거·폐기·소독 등 방제 관련 비용 일체와 농작물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산 최소화를 위해 방제를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휴경이 필요하다. 휴경 이후 검사를 거쳐 재정식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외에, 재해대책 경영 자금 지원 등으로 휴경기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외부인 출입 최소화, 손·자재·도구 소독 등 위생 관리 철저 및 공용물품 사용 금지, 의심 증상 발견 시 즉각 신고 등 대응지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생육상황 및 휴경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장기 수급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산항만공사, 스마트항만 성과 공유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부스 운영

부산항만공사(BPA)가 '2026년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산항의 스마트항만 구현 성과를 선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모두의 혁신, 든든한 미래, 행복한 국민'을 슬로건으로 지난 25일 개막했다. 이달 27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 제1 전시장에서 사흘간 열린다.

부산항만공사는 '인공지능(AI) 혁신정부 전시구역'에서 'AI 디지털플랫폼으로 구현한 스마트 부산항'을 주제로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주요 전시 내용은 부산항 전 부두별 환적화물 처리 상황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포트아이(Port-i)'와 화물차 운전기사의 컨테이너 항만 반출입 업무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 '올컨e'이며다. 특히 포트아이의 주요 기능인 선박식별시스템(Global AIS) 기능과 AI 기반 선박 입출항 지연 및 환적 연결성 이상 탐지 기능도 소개한다. 선박식별시스템 기능을 통해, 부산 입항 예정 선박의 전 세계 위치를 3D 지구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올컨e를 통한 화물차량 배차 효율 증대,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 물류 효율 개선 성과를 소개하고 화물차 도착 예상시간 예측과 음성 기반 양방향 소통 등 향후 기능 고도화 계획도 함께 선보인다.


'2026년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부산항만공사 전시부스.

/세종=김연세 기자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햇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햇터그룹
Haetter Group

수장 잃은 교육부… 수능 수습부터 대입 개편까지 과제 산적

최교진 사퇴에 차관 직무대행 체제
부정행위 조사·입시 신뢰 회복 시급
고교학점제 안착·교권 보호도 숙제
현안 해결할 후임 장관 인선에 촉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 부실 논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교육부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교육부는 당장 수능 부정행위 사후 조사는 물론 입시 행정 안정화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안착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전 장관은 지난 22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면직안을 재가했다. 현재는 최은옥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가장 먼저 닥친 과제는 수능 부정행위 사태의 수습과 관리 체계 재정비다. 올해 수능에서 적발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111건으로, 실제 기기를 이용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교육부는 성적 통지 전까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태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고, 시험 직전까지 대응 방침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시 행정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지난 9월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앞두고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 서버에 장애가 발생해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을 인정하고 354건의 접수를 완료했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버 이중화와 부하 테스트 등 시스템 운영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서 특별조사도 연장된 바 있다. 민간 대행업체의 시스템 점검·관리 기준과 수험생 보호 절차도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입 개편과 고교학점제 안착도 숙제다. 내년부터 고교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고, 수능은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고교학점제를 적용받은 첫 세대가 고교 3학년에 진입하는 만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학교별 과목 개설 여건에 따른 선택권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평가, 대입제도를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증원을 후임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교권 보호와 교육재정 문제도 풀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전 장관 재임 당시의 교권 보호대책이 현장 체감도가 낮았다며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도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계의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교육행정 경험자와 정치인 등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대입 일정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사정에 밝은 인물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인사청문회 통과를 고려하면 여당 정치인 카드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교육계에서는 박백범 가톨릭꽃동네대 총장이 언급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냈고, 지난해 장관 인선 때도 후보군에 올랐다. 최은옥 차관은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정책 연속성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수능 대응 과정에 참여했던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김영호 의원(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과 고민정 의원(교육위 여당 간사) 등 국회 교육위원회 경험자가 거론된다. 이 밖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을 지낸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홍창남 부산대 교수 등의 이름도 나온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현안을 해결할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갖춘 장관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소신 있게 전달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김종승 화학과 교수


노준홍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안춘기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클라우스 로베르트 뮐러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

고려대 교수 4명, '세계 영향력 연구자' 선정

클래리베이트, 올해 HCR 명단 발표
김종승 교수, 올해로 12회째 이름 올려

고려대학교 교원 4명이 '2026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에 이름을 올렸다. 고려대는 김종승 화학과 교수와 노준홍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안춘기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클라우스 로베르트 뮐러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가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 기업 클래리베이트가 발표한 올해 HCR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HCR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된 논문을 토대로 연구자의 학술적 영향력을 평가해 선정한다.

김 교수는 올해로 12회째 화학 분야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됐다. 노 교수는 크로스 필드 분야에서 9년 연속, 안 교수는 공학 분야에서 8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까지 크로스 필드 분야에서 7년 연속 선정됐던 뮐러 교수는 올해 화학 분야 연구자로 포함됐다.

김 교수는 저분자 화합물을 활용한 표적 항암제와 약물 전달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노 교수는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고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안 교수는 지능제어와 물리적 인공지능을 드론·차량·로봇 등 자율시스템에 적용하는 분야를 연구 중이다.

뮐러 교수는 머신러닝 이론을 비롯해 설명 가능한 AI와 의료 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연구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서울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추진

서울시교육청, 사고력 중심 평가 전환
2029년까지 내신 비중 50% 이상 목표
채점 공정성·교사 업무부담 해소 과제

서울시교육청이 2029년까지 중·고교 내신의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구상을 내놨다. 인공지능(AI)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정답 중심 평가가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사고 과정과 표현력을 살피는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넘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올해 30%에서 내년 35%, 2028년 40%, 2029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기존 시험 방식만으로 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진 만큼, 학교 수업에서부터 사고력을 키우고 이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2027학년도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부된 앞치마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고 있다. /경희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발표한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에 따라 교원 연수와 평가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운영하는 실천학교도 늘렸다. 실천학교는 지난해 66개교에서 올해 135개교로 확대됐다.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지원 도구인 '채움AI'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실천학교에서 축적한 약 3만 건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AI 채점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전했다. 인간 채점자와 AI의 채점 일치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QWK도 0.8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마다 답안의 표현과 논리 전개가 달라 평가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같은 답안을 두고도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공유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응할 절차도 필요하다.

AI 채점 시스템이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I 채점 경험이 있는 중등교사 734명 중 64.1%는 'AI가 채점한 결과를 다시 확인하느라 업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충분한 준비 기간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나온다. /김수정 기자

수능 시험지 보관기간 5년으로 연장 추진

교육부, 시험지 보관 현황 전수조사

지난해 수능을 치른 시험장 17.8%가 이미 시험지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사후 조사를 위해 시험지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시험장 1310교 중 1077교(82.2%)가 시험지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33교(17.8%)는 시험지를 폐기했다. 조사는 지난 24일 오후 1시 기준이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44개 시험장 모두 시험지를 폐기해 보관율이 0%였다. 인천(41.3%)과 제주(50.0%)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경남과 세종은 모든 시험장이 시험지를 보관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지를 폐기한 시험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폐기량과 폐기일자,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관된 시험지는 신고센터 제보 등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확인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중등교사 임용시험 감독 대폭 강화

서울교육청, 열화상탐지기 추가 투입
복장 점검 강화·무선통신 신호 점검

서울시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감독을 강화한다. 시험장에 전파·금속탐지기뿐 아니라 열화상복합탐지기도 투입해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실시하는 202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응시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 통신·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해당 기기는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가방 등에 보관한 사실만 확인돼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가방과 소지품은 시험실 밖 복도에 보관한다.

복장 점검도 강화한다. 응시자에게 무늬나 장식이 없는 간편한 옷차림을 권장하고, 시험 시작 전 일회용 앞치마를 배부해 착용하도록 한다. 앞치마 밖으로 드러나는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인다. 매 교시 시작 전에는 소매를 걷어 확인받아야 하며, 안경 착용자는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벗어 감독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개인 수정테이프·지우개 사용도 금지한다. 지우개는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는 필요시 감독관이 제공한다.

시험장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보안요원이 복도에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점검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자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해 점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 외에도 열화상복합탐지기를 시험장별로 추가 투입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스타벅스, 'K-헤리티지' 승부수… "내년 질적성장 원년"

N서울타워에 15번째 스페셜 스토어
사랑채 등 한옥공간 현대적 재해석
신동우 대표 "4분기 흑자전환 총력"

스타벅스 코리아가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N서울타워에 15번째 스페셜 스토어 '더남산서울타워점'을 선보이며 실적 반등과 고객 신뢰 회복의 승부수를 띄웠다. 아울러 취임 반년을 맞은 신동우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가 4분기 흑자 전환(턴어라운드)과 2027년 '질적 성장' 원년 선포를 공식화했다.

스타벅스는 26일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오픈 하우스 행사를 열고 오는 27일 정식 개점하는 '더남산서울타워점'을 공개했다.

이번 매장은 경동1960, 장충라운지R, 더북한산R 등에 이은 15번째 스페셜 스토어다. N서울타워 4층과 5층에 약 300평(200여 석) 규모로 자리 잡아 남산 능선과 한강 등 서울 전경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다. 매장 내부는 대문·마당·사랑채·툇마루·안채 등 한국 전통 한옥의 공간 구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헤리티지 커피하우스' 콘셉트를 적용했다.

매장 입구에는 남산과 지역 특화 MD를 모은 전용 굿즈존을 배치해 관광 특화 매장의 매력을 높였다. 메뉴 역시 국내산 쌀을 활용한 '사랑채 누룽지 카페 라떼'와 막걸리에서 영감을 받은 칵테일 '남산 월백', '남산 바움쿠헨', 약과 등 전용 음료와 디저트로 차별화했다.



스타벅스 더남산서울타워점 매장 입구.

간담회에 직접 나선 신동우 대표는 스페셜 스토어의 수익성과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신 대표는 "스페셜 스토어는 일반 주거·오피스 상권의 코어 매장과 달리 고객의 목적성 방문을 이끌어내는 공간"이라며 "특화 메뉴와 공간 경험 덕분에 객단가와 전체 매출 볼륨 모두 일반 코어 매장 대비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관광객 유입에 따라 향후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대표는 "내부적으로 고려는 했으나 글로벌 차원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막대한 비용과 투자가 수반돼 당장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신 대표는 지난 5월 발생한 마케팅 이슈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는 "검수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점이 근본 원인으로,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전사적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콘텐츠 기획과 별도로 작동하는 전담 검수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동우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가 더남산서울타워점 오픈 하우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실적 부진의 배경과 향후 반등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스타벅스는 올해 2·3분기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냈다.

신 대표는 "매출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직영 운영에 따른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컸고, 신제품 출시 지연에 따른 원부재료 폐기 손실과 원두 가격·환율 상승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 지표가 빠르게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폭은 6월 28%에서 9월 8%까지 축소됐고, 영업손실도 6월 251억 원에서 9월 135억 원으로 줄었다. 6월 대비 9월 일평균 매출과 방문객 수는 각각 17%, 11% 늘었으며, 리워드 회원은 10월 기준 1600만 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일주일 앞당겨 시작한 겨울 e-프리퀀시와 최근 출시 당일 '오픈런'을 일으킨 헬로키티 협업 굿즈가 하반기 최고 일매출을 기록하며 4분기 흑자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스타벅스는 내년을 '질적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저가 커피 공세 등 치열해진 시장 경쟁에 대응할 방침이다. 무리한 신규 출점 대신 기존 매장을 '커피하우스' 콘셉트로 리뉴얼해 체류 경험을 높이고, 글로벌 스타벅스의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국 2200여 개 매장의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린다. 아울러 '에어로카노' 같은 시그니처 커피와 함께 논커피(Non-Coffee)·티(Tea) 라인업을 확대해 외연을 넓힌다.

신동우 대표는 "지난 27년간 국민 브랜드로서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기본부터 다시 다잡고 있다"며 "스페셜 스토어와 일반 매장의 균형 있는 출점과 현장 중심의 환대 서비스를 통해 4분기 턴어라운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百, '롯데타운 명동' 예술·미식·문화 콘텐츠 공간 재편

루미에르 서울·롯데타운 라이트 공개
'아트·뮤직·푸드·위시' 테마 축제 예정

롯데백화점이 롯데타운 명동에 예술과 미식,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공간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1년여간 진행한 공간 개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본점 지하에는 빛을 테마로 한 '루미에르 서울(LUMIERE SEOUL)'을, 지상에는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롯데타운 라이트(LOTTETOWN LIGHT)'를 각각 공개한다.

'루미에르 서울'은 27일 공개된다.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조성되는 루미에르 서울은 한국의 예술과 기념품, 미식을 한 공간에 담아낸 테마 광장이다.

프랑스어로 빛을 의미하는 '루미에르'는 지난 1979년 본점이 공식 개점하기 전 축소판 형태로 공개했던 '루미에르 부티크'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약 250평(840㎡) 규모의 루미에르 서울은 고객이 롯데백화점 본점을 마주하기까지의 동선 전반에 빛의 요소를 반영했다. 광장 중앙에는 설치미술가 박선기 작가와 협업해 만든 조형물 '루미에르 스피어(LUMIERE SPHERE)'를 설치했다.



롯데타운 라이트 '루미에르 백송 빛의 아카이브' 시연 영상 이미지. /롯데쇼핑

다음 달 1일에는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롯데타운 라이트'가 공식 운영에 나선다. 서울시와 중구가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명동스퀘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완성된 롯데타운 라이트는 가로 77m, 세로 21m 규모로 농구장 4개 코트에 맞먹는 크기에 초고해상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했다.

롯데백화점은 루미에르 서울과 롯데타운 라이트 개장을 맞아 기념 행사도 마련한다.

27일에는 본점 지하 1층 루미에르 서울에서 안무가 그룹 꼬레오가 빛을 춤으로 표현하는 오프닝 퍼포먼스를 펼치고 이를 롯데타운 라이트를 통해 생중계한다.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롯데백화점 본점과 명동길 등 명동 일대에서는 '아트', '뮤직', '푸드', '위시' 등 4가지 테마의 축제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G마켓
'뷰티 홈' 청사진 공개

G마켓이 내년 초 뷰티 전용 쇼핑 공간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선다.

G마켓은 26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2026 뷰티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2027년 뷰티 사업 전략과 내년 1분기 선보일 '뷰티 홈'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 G마켓 대표를 비롯해 뷰티·글로벌 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발표 내용은 내년 1분기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인 '뷰티 홈'(가칭)이다. G마켓 앱 내에 뷰티 전문 쇼핑 공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G마켓의 뷰티 사업 비전 발표에 이어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과 뷰티 산업 동향을 공유했다. G마켓의 글로벌 사업 담당자가 이커머스를 활용한 뷰티 역직구 전략을 소개하는 세션도 마련했다.

/김서현 기자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 제품·패키지 혁신… 브랜드 경쟁력 강화

"오랜 시간 찾아주신 소비자 기대 부응"

롯데칠성음료의 대표 탄산음료 칠성사이다가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제품과 패키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1950년 5월 9일 출시된 칠성사이다는 75년 넘게 국내 탄산음료 시장에서 입지를 이어온 브랜드다. 전쟁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시기에도 생산을 이어가며 여러 세대의 일상과 함께했다. 중장년층에게는 김밥과 삶은 달걀을 곁들인 소풍 음식의 추억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답답한 상황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순간을 표현하는 '사이다'라는 대중적 언어로 자리 잡았다.

롯데칠성음료는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제품군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 오리지널 제품의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 칼로리 부담을 낮춘 '칠성사이다 제로'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 10월에는 과즙 탄산음료 '칠성사이다 RICH'를 출시했다.

칠성사이다 RICH는 과즙 함량을 20%까지 높여 과일의 풍미와 탄산의 청량감을 함께 구현한 제품이다. 복숭아와 포도 등 두 가지 맛으로 구성했으며, 과일 색상과 원물 이미지를 패키지에 적용해 제품 특성을 강조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걸그룹 하츠투하츠를 모델로 발탁하고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RICH'를 핵심 메시지로 한 광고도 공개했다.

패키지 부문에서는 재생 플라스틱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100%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한 칠성사이다 500㎖ 페트병을 출시했다. 올해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데 대응하는 동시에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해당 패키지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칠성사이다 300㎖·500㎖ 페트 제품 출고량을 기준으로 약 1300톤의 신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오랜 시간 칠성사이다를 찾아주신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와 수요에 맞춰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맛의 칠성사이다 RICH를 선보이고 있다"며 "국민 탄산음료 브랜드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100%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병 생산을 통해 순환경제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칠성사이다 RICH 2종. /롯데칠성음료

/신원선 기자

더본코리아
한식 제품 유통사업 확대

더본코리아가 태국 대형 유통기업 CP그룹과 협력해 현지 한식 제품 유통사업을 확대한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일 태국 방콕에 문을 연 프리미엄 회원제 대형마트 '엑스트라 클럽(AXTRA Club)'에서 TBK 소스를 활용한 양념육 4종 판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더본코리아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스와 제품별 레시피를 제공하면 CP그룹이 현지 생산시설을 활용해 완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방식이다.

더본코리아는 현지 판매 품목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뇌 건강’ 新 패러다임… “증상완화 넘어 조기진단으로 전환”

대한신경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신경과질환 복잡한 과정 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단편적
높은 약가, 급여 기준 등 지적



대한신경과학회 서대원 이사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청하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의 사회적 부담이 폭증하면서, 신경과 진료 패러다임이 단순 증상 완화를 넘어 ‘조기 진단과 근본적 치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 복합 진료 특성과 24시간 응급 대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 및 까다로운 급여 기준이 환자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신경과학회는 26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한신경과학회(ICKNA) 2026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 주제는 ‘뇌 건강’으로 신경과학 미래 비전, 정책 과제, 최신 동향 등을 다뤘다.

서대원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은 “현대사회에서 뇌와 신경망 건강은 개인 삶을 넘어 국가 핵심 과제”라며 “학술적 성취가 실제 진료실의 환자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학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편두통의 신경염증 기전, 알츠하이머병의 병태생리, 파킨슨병의 피부 조직 바이오마커, 의료 AI의 임상 적용과 안전성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신경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했다.

대한신경과학회 신제영 총무이사(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교수)는 “과거에는 증상 완화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편두통 통증 유발 물질을 선제 차단하는 표적 치료, 치매 발병 위험도와 약물 부작용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분석한 질병조절치료제, 피부 조직 검사로 독성 단백질을 찾아내는 파킨슨병 조기 진단 등 정밀 의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낡은 보건의료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대한신경과학회 최호진 재무이사(한양대 구리병원 교수)는 “신경과 질환은 수치 하나로 진단이 끝나는 타 과와 달리 신경학적 평가, 영상, 뇌파 등 3~5단계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단편적 행위만 보상한다”며 “뇌졸중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24시간 원내 대기하는 당직 시스템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과 전공의 수련 공백 지원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비싼 약가와 경직된 급여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학회 측은 “치매 신약 레켐비를 비롯해 희귀 신경면역질환 신약이 나와도 높은 약가 탓에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저가 약물 실패를 증명해야만 신약을 쓸 수 있는 깐깐한 급여 기준을 완화해 1차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독자적인 중추신경계(CNS) 파이프라인 성과를 무기로 상업화 안착과 자본시장 도약이라는 두 축에서 괄목할 성적을 내고 있다.

우선 국산 신약 상업화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 뇌전증 혁신신약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수익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세노바메이트 소아·전신화 발작 적응증을 확장하고 있고 나아가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SKL32276’ 전임상도 진행한다. 또 방사성의약품치료제(RPT), 표적단백질분해(TPD) 등 차세대 모달리티로 파이프라인을 강화해 ‘한국형 빅 바이오텍’으로 진화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텍 아리바이오의 자본시장 입성 추진도 기대감을 높인다. 아리바이오는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13개국 1535명 대상) 주요 결과 데이터에서 1차 유효성 지표를 충족하며 상용화 청신호를 켰다. AR1001은 아밀로이드 응집체 제거, 타우 단백질 억제, 뇌혈류 개선 등을 동시에 구현하는 다중기전 후보물질이다.

대한신경과학회 김범준 미래전략특임이사(서울아산병원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신약과 디지털·AI 의료기술이 내수를 넘어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임상적 근거를 뒷받침할 학회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현지 기후·소비자 공략 성과 블랙포레, 대만 ‘라이징스타상’

애경산업 탈모 케어 전문 헤어 브랜드
대만 왓슨스 입점 후 月 3000개 판매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두피 열감과 피지 관리 고민이 깊은 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K-헤어케어 브랜드가 현지 대표 뷰티 채널에서 존재감을 입증했다.

애경산업은 탈모 케어 전문 헤어 브랜드 ‘블랙포레’가 대만 왓슨스가 주관하는 ‘건강미용대상’에서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현지 기후와 소비자 특성에 맞춘 제품 경쟁력으로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블랙포레는 무덥고 습한 대만 날씨를 고려한 시원한 쿨링 사용감과 두피 유분·피지 케어 전문성을 앞세워 현지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실제 판매 성과도 가파르다. 지난 5월 초 대만 전역 약 600개 매장을 보유한 대만 왓슨스에 본격 입점한 이후 월평균 약 3000개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행사 기간에는 월 4500개까지 판매고가 뛰었다. 지난달에는 민감성 두피 케어 샴푸를 추가 출시해 두피 고민별 제품군도 확대했다.

애경산업은 대만 흥행을 발판 삼아 글로벌 유통망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7년 1분기 홍콩 왓슨스 입점을 추진 중이며 중국·러시아·폴란드 등으로 판매 국가를 넓혀 글로벌 헤어케어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블랙포레는 국가별 기후 특성과 소비자의 두피 관리 요구를 반영한 제품 경쟁력을 갖췄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두피 케어 제품으로 국내외 소비자 접점을 지속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한미사이언스 “캡슐·앰플 한 번에 바른다”

이중제형 스킨케어 ‘미라클 퍼플 앰플’

K뷰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엇을 넣었는가’에서 ‘어떻게 바르는가’까지 제형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사용 직전 두 가지 제형을 직접 섞어 유효 성분의 신선도를 높이고 사용 과정에서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더하는 화장품이 대표적이다.

한미사이언스는 고급 더마 화장품 브랜드 아데시 신제품으로 동결건조 캡슐과 액상 앰플을 혼합해 사용하는 이중제형 스킨케어 ‘미라클 퍼플 앰플’(사진)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분·광채 성분을 응축한 붉은빛 동결건조 캡슐 ‘레드 이펙트’와 진정·항산화용 푸른빛 액상 베이스 ‘블루 앰플’을 혼합하면 보랏빛의 ‘미라클 퍼플 앰플’이 완성된다.

각 제형에는 아데시의 피부과학 노하우와 핵심 성분이 집약됐다. 레드 이펙트에는 히알루론산과 나이아신아마이드, NMN 등을 배합해 피부 탄력과 보습을 돕는다. 블루 앰플에는 독자 항산화 성분 ‘H-EGTI’를 중심으로 판테놀·아줄렌·비타민 K·마린엑소좀 등을 담아 피부 장벽과 진정에 효과를 갖췄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피부 개선 지표도 확보했다. 2주 사용 후 피부 겉 탄력은 3.95%, 속탄력은 4.79% 개선됐다. 또 1회 사용만으로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거칠기(결 컨디션)가 11.89% 완화됐다. /이청하 기자

한국콜마,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男 육아휴직 의무화, 업무공백 해소
가족친화 경영 인력 이탈 방지로 직결

한국콜마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업무 공백을 메우는 동료까지 보상하는 파격적인 가족친화 제도를 통해 퇴직률을 낮추고 핵심 인재를 유지하고 있다. 자회사 HK이노엔도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해 그룹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

한국콜마는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6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자회사인 HK이노엔 역시 선택근무제와 시간 단위 연차 등 유연근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일·육아 병행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 심사를 거쳐 평가한다.

한국콜마는 출산부터 양육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4년부터 남성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직후 1개월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3년 대비 18배 이상 급증했다. 출산장려금도 2024년부터 첫째·둘째 각 1000만원, 셋째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현재까지 임직원 150여 명에게 지급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현장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상생 문화도 독보적이다. 한국콜마는 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별도 휴가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콜마육아동료 업무지원제’를 도입해 부서 내 눈치 보기를 없앴다. /이청하 기자

파마리서치, 글로벌서 브랜드 보호망 강화

리쥬란코스메틱 대표 제품 4종
‘K-브랜드 정부인증’ 선정

파마리서치가 자체적인 인공지능(AI) 위조품 감독과 법적 대응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IP) 보호망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서 정품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코스메틱’의 대표 제품 4종이 ‘K-브랜드 정부인증’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K-브랜드 정부인증은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제도다.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1기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파마리서치 김원권 경영전략본부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파마리서치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리쥬란 듀얼 이펙트 앰플 ▲리쥬란 뉴트리티브 크림 ▲리쥬란 턴오버 앰플 ▲리쥬란 턴오버 마스크 등 4종이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플로디시티닙 약물 최적 용량 도출 속도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 ‘플로디시티닙’의 체내 약물 반응 예측 모델을 구축하며 후속 환자 대상 임상을 위한 최적 용량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제주에서 열리는 ‘2026 대한임상약리학회(KSCPT) 추계학술대회’에서 플로디시티닙(DWP212525)의 임상 1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집단 약동학·약력학 모델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플로디시티닙은 경구용 자가면역·염증성 질환 신약 후보물질이다.

특정 경로만 차단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사이토카인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JAK3’, T세포 수용체 신호를 매개하는 ‘ITK’, B세포 수용체 신호를 매개하는 ‘BTK’를 동시에 억제하는 삼중 표적 기전을 갖췄다. /이청하 기자

부광약품
15년 R&D 성과 빛났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부광약품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과 15년간 이어온 연구개발(R&D)로 성과를 냈다. 부광약품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6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연구개발 역량과 글로벌 시장 진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정부 제도다. 부광약품은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첫 인증을 획득한 이래 연속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며 올해로 15년째 인증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2026 HOLIDAY SEASON

MADE FOR MERRY MOMENT

Sweetest

✦ 크럼블 토피넛 라떼
Crumble Toffee Nut Latte

✦ 윈터 애플 시나몬 뱅쇼
Winter Apple Cinnamon Vin Chaud

✦ 크리스마스트리 레드벨벳
Christmas Tree Red Velvet Cake

✦ 벨지안 초콜릿 치아바타
Belgian Chocolate Ciabatta

ANGELINUS

Christmas

연기 나면 AI가 감지… 포스코, 산불 취약마을 지킨다

산불 취약 마을 초기 대응 체계 구축
AI 기술·철강 소재·건설 역량 활용
포항·광양·안동·여수 4곳 시범 선정



포항 중산리에 설치된 AI산불감지시스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1%나눔재단이 포스코그룹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철강 소재, 건설 역량을 결집해 산불 취약 마을의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 감지부터 진화, 대피까지 마을 단위의 대응 기반이 마련되면서 고령층이 많고 소방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산불 초기 대응이 시급한 포항·광양·안동·여수 등 4개 지역 마을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포스코 쉴드(POSCO Shield)' 사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스코 쉴드는 산불에 취약한 마을에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춰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사업이다.

재단은 우선 산불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포스코DX의 AI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영상 감시 장치를 마을에 설치했다. 해당 장치는 미세한 연기나 불꽃 등 산불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소방당국·지자체와 협업해 주민들에게 즉시 알린다. 이를 통해 산불 초기 진화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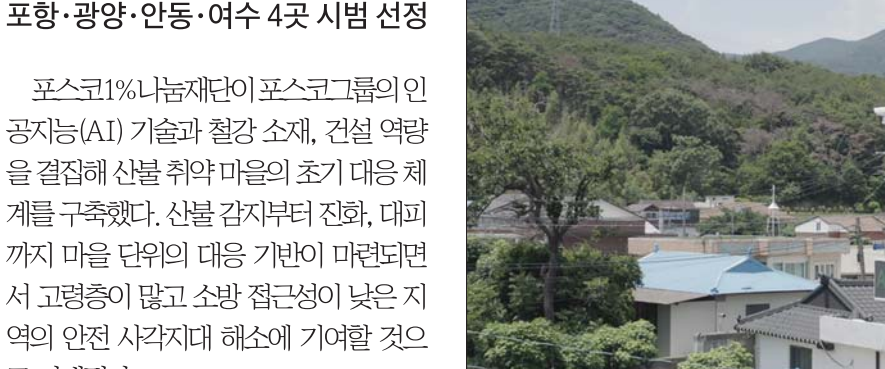
진화 장비에는 포스코의 고강도 강재가 쓰였다. 내구성을 높이면서도 고령의 주민들이 쉽게 다룰 수 있도록 경량화한 맞춤형 장비다. 재단은 소방청·산림청의 산불 진화 관계자들과 협업해 진화 장비와 비상소화장치를 마을 곳곳에 배치했다.

노후한 마을회관은 재난대응센터로 거듭났다.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스틸리온의 기술력으로 불에 타지 않는 컬러강판을 적용해 평소에는 주민 쉼터로 쓰다가 산불이 나면 안전한 대피소 역할을 하도록 리모델링했다.

주민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재단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4개 시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과 진화 장비 사용법, AI 감지 시스템 활용법 등을 교육했다. 안전가방 만들기와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도 실시해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는 재단 기부금과 포스코의 GEM펀드, 각 사업회사 기금이 활용됐다. GEM펀드는 포스코가 2019년부터 원료공급사와 1대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해 운영 중인 사회공헌 기금이다.

포스코1%나눔재단 관계자는 "포스코 쉴드는 포스코그룹의 AI 기술과 철강 소재, 건설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산불예방 취약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결해 나가는 상생협력 모델"이라며 "단순한 개별 시설의 공간 개선을 넘어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CMK 그린 소사이어티 Chapter III 최종 성과공유회' 참석자 단체사진 /현대차정몽구재단

현대차 정몽구 재단, 기후테크 창업 지원

기후테크 연구팀 3곳 법인 설립
내년 민간 투자기관 연계 강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기후테크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사회혁신 창업가 육성을 확대한다. 기술개발과 창업 지원에 민간 투자 연계를 강화해 시장 진출과 후속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 24~25일 서울에서 'CMK 그린 소사이어티' 최종 성과공유회와 '2026 임팩트프러너 데이'를 열고 기업가 육성 성과와 향후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올해 두 사업을 '현대차 정몽구 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묶고 기후테크 연구자와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창업가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시작한 CMK 그린 소사이어티는 연구팀 9곳에 기술개발부터 사업모델 수립, 실증, 투자기관 연계까지 지원했다. 지난 3년간 3개 팀이 법인을 설립하고 3개 팀이 기술이전을 추진했다. 투자유치와 정부 지원사업 선정은 10건, 민간 매칭 규모는 약 200억원이었다.

내년 시작하는 2기는 기술실증과 사업모델 검증에 집중한다. 초기부터 민간 투자기관과 협력하고 고객 확보와 해외 진출을 지원할 파트너도 확대할 방침이다.

임팩트프러너 데이에서는 대학생 예비 창업팀과 초기·성장 단계 스타트업 등 11개 팀이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부문별 대상은 리블록과 엑시스트, 지오그리드가 받았다.

김걸 현대차 정몽구 재단 부이사장은 "재단은 이들의 도전이 더 큰 사회적 가치로 확산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LG전자, 김장 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임직원 30여명 모여 김장 3톤

LG전자 임직원들이 김장 김치와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

LG전자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랑의 김치 나눔 DAY'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LG전자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독거 어르신 300가구에 전달할 김장 김치 3톤을 담갔다. 임직원들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김치와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이번 봉사활동은 독거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과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전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비전인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2년부터 김치 나눔 활동을 통해 쪽방촌 주민과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 김치를 전달해 왔다. /차현정 기자 hyeon@

우리은행, 쿠팡이츠와 라이더 배달료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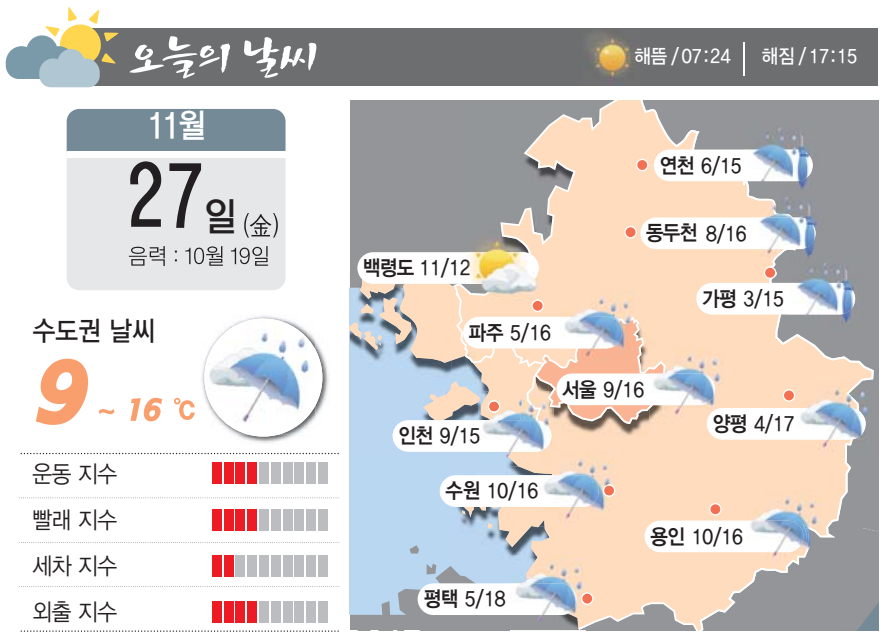
배달대행 정산체계 개선 협약

우리은행이 배달 플랫폼의 정산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고 배달료 미지급 위험도 낮춘다.

우리은행은 쿠팡이츠서비스와 '배달대행사 소속 라이더의 배달료 정산금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배달앱과 배달대행사, 라이더로 이어지는 정산 과정에 우리은행의 '우리SAFE정산'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우리SAFE정산'은 2024년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작년 2월 출시한 정산 서비스다. 은행이 결제대금을 직접 관리하고 플랫폼 수수료와 판매대금을 분리 지급한다.

양사는 우리SAFE정산의 정산 방식을 배달 플랫폼에 적용해 배달대행사의 수수료와 라이더의 배달료를 구분해 배달료 미지급 위험을 줄이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개선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인 사 ◆삼성카드 ◇부사장 승진 △김현주 △이영희 ◇상무 승진 △강성원 △변성현 △이종용

◆삼성생명 ◇부사장 승진 △고윤상 ◇상무 승진 △구철환 △나병권 △이현정 △장정민 △정재욱

◆삼성화재 ◇부사장 승진 △조번형 △황상민 ◇상무 승진 △김기원 △박혜원 △이도한 △이동욱 △이재범 △이택상

◆(주)HS효성 ◇사장 승진 △안성훈 ◇부사장 승진 △이창엽 ◇상무 승진 △김영수 △최영숙 ◇상무보 승진 △홍경욱

◆HS효성첨단소재(주) ◇사장 승진 △성낙양 ◇전무 승진 △정종훈 ◇상무 승진 △김준일 △서유석 △이병진 ◇상무보 승진 △고대원 △임한규

부 음 ▲전수남씨 별세, 전승희(신세계 백화점부문 홍보기획팀장) 부친상, 안광건((주)메가비엠씨 사업운영장 본부장 상무)씨 장인상 = 26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8일 오전 5시 00분,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02-2227-7500

▲송봉식(전 대전 유성구의회 의장)씨 별세 =25일, 대전 서구 갑천도시고속도로 1893 성심장례식장 VIP 3 빈소, 발인 28일 오전 6시30분, 장지 대전정수원. 042-522-4494



한국타이어, 생산 현장 혁신 '대통령표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품질경영과 생산 현장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표창 등 총 8개 부문을 수상했다. 제5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경영 유공자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준길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공장장. /한국타이어



iM뱅크,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iM뱅크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 후원하는 '2026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겨울철 먹거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강정훈 iM뱅크 은행장(맨앞줄 오른쪽)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뱅크



한유원, 규제혁신·중소기업 지원 성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와 경영안정화 공로를 인정받아 각종 표창을 수상했다. 한유원 고석원 부사장(왼쪽 4번째)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규제혁신 대상'에서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왼쪽 3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유원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한중 협력 강조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청년 세대의 교류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선전의 성장 과정과 양국 경제 협력 현안도 소개하며 미래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지난 25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열린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 초청 특강 현장. /중앙대

국민대

안중근 순국 역사 재조명

한국·중국·일본 3국 학자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중근 의사의 순국과 추모의 역사를 각국 시각에서 조명한다.

국민대학교는 27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국제학술대회 '한중일의 시선으로 보는 안중근 의사의 순국과 추모'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대와 안중근의사찾기 한중민간상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숨은 길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대한민국 로열로드 45

지정도시 전국 모집



관광객이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 ,
로열 로드카를 타고 만나는 45 개의 특별한 여행

전국 45 곳 발굴 · 45 개 공식 지정 · 1 곳 당 로드카 20~30 대 , 2~3 개 팀 운영



모집 대상

**왕실문화·역사·바다·강·호수·산사·농촌 풍경 등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을
로드카 20~30대가 2~3개 팀으로 나뉘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역에는 노선개발·여행상품·공동홍보·통합예약·지정도시 인증을 지원합니다



권장 신청구조

지자체 + 지역 운영파트너 + 상인·주민 협의체

지역의 길을 관광산업으로 바꿀 대한민국 로열로드 지정도시를 찾습니다

사업 참여 문의 010-3414-4939

ON나눔

대한민국 로열로드 45 지정도시

의대 학종, 고교 서열·성적순?… 입시의 맹점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입시 현장에서 "의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결국 고교 서열과 교내 석차순으로 갈린다"는 주장이 반복된다.최 근 한 대입전문가의 영상과 시청자 댓글 논쟁은 이러한 통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영상은 의대 학종을 선택과목이나 서류 평가가 작동하는 전형이 아니라,고교 유형별로 고착화된 석차 라인이 지배하는 전형으로 규정하며 "의대 학종은 성적순"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제시된 통계와 현장의 반론, 그리고 변화하는 대입 제도의 맥락을 함께 살피면 이는 현실의 일부 단면을 과도하게 일반화한 해석이다.

영상은 21개 자사고의 의대 819건(재학 426·졸업 330건 등) 실적과 휘문고(139건),상산고(117건),세화고(75건),중동고(66건) 등의 사례, 그리고 상산고의 2025학년도 실적(의대 182건 중 정시 124건)과 주요 일반고·갓반고 사례를 근거로 "교과도 학종도 성적순"이라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대학별 합격 '건수'는 중복합격과 N수생, 정시 실적이 혼재된 지표다. 학교별 모집 정원과 졸업생 비중,지역인재 전형 유무에 따라 수치의 맥락은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 댓글 창에서도 전교생 규모 대비 현역 진학률과 지역인재 비율을 둘러싼 반박과 엇갈린 현장 증언이 이어졌다. 수시와 정시,재학생과 졸업생을 분리하지 않은 채 단편적 종합만으로 고교 서열을 단정하는 것은 통계 독해의 명백한 맹점이다.

더욱 경계해야 할 대목은 "의대 학종은 서류나 선택과목을 보지 않는다"는 무용론이다. 생물 등 핵심 과목 이수 없이 등급만 챙기면 합격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단언이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내신 5등급제 체제에서는 진로선택과목에도 석차등급이 표기되고 1등급 비율이 10%로 확대되면서, 단순 등급 숫자만으로는 상위권 변별이 어려워진다. 결국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과 수행평가 요약지에 담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여부와 학업 탐구의 깊이가 당락을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된다. 실제 댓글에서도 "같은 학교에서 전교 6등·13등은 떨어지고 9~11등·15등·18등은 1차에 합격했다"는 토로가 나왔다. 블라인드 평가 환경에서도 교육과정 이수 맥락과 탐구 서사의 정합성이 전형마다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 등수 논리로는 이러한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수도권 수험생에게 수시 의대의 문턱이 높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은 새겨들을 대목이다. 그러나 입시를 단정적 구호로만 소비하면 '고교 서열 숙명론'이나 '비교과 만능론'이라는 양극단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중복합격과 정시 실적이 섞인 외형적 건수에 흔들리지 말고 전형별 실제 합격 구조를 냉철히 따져야 한다.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5등급제 흐름에 맞춰 기하·미적분Ⅱ 및 생명과학·화학 등 핵심 수과학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내실 있는 학업 역량과 교과세특·수행평가 요약지 기록을 탄탄히 쌓아가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빨라진 배송, 엇갈리는 책임… 새벽배송의 빈틈



기자 수첩
신 원 선
〈유통&라이프부〉

퇴근길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산지의 신선함이 놓이는 시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은 14조 4783억 원, 모바일 쇼핑 비중은 78%를 넘어섰다. 비대면 새벽·당일배송이 명실상부한 국민 식생활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눈부신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콜드체인(저온 유통망) 사각지대'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폭증하는 물량을 유통망이 감당하지 못해 과부하가 걸리면서 온도 이탈로 인한 변질 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전체 소비자 불만의 약 40%가 '배송 지연(21.5%)'과 '품질 하자(18.1%)'에 집중됐다. 업계 통상 반품·폐기율만 대입해도 연간 수백억 원대의 사회적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문 앞 비대면 배송 구조에서는 택배가 도착한 새벽 시간부터 소비자가 문을 열고 상품을 확인하는 아침까지 시간적 공백이 발생한다. 배송 당시 상품의 온도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면 변질 원인이 유통 과정에 있었는지, 배송 이후 소비자의 보관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일부 유통업체가 배송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만 물을 수는 없다. 새벽배송은 소비자가 비대면 수령을 선택하는 서비스인 만큼 상품을 받은 뒤 신속하게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배송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시간 상품을 문 앞에 방치하거나 변질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판매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의 책임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간 단위로 선도가 떨어지는 생물을 일반 공산품과 동일한 고객서비스(CS) 기준으로 처리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상담원 연결이 지연돼 뒤늦게 항의하면 '수령 후 24시간 이내 사진 증빙이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식이다. 반면 조건 없는 선환불 제도는 악성 소비자(블랙컨슈머)의 악용 가능성을 키워 영세 유통사나 산지 직송 농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보호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배송·보관 기록을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 tree6834@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7일 (음 10월 1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해집니다. **60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갑니다. **72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귀인입니다. **84년생** 아랫사람과 도모해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49년생 직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힘쓰세요. **61년생** 금전운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73년생** 금전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85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50년생 지병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보세요. **62년생** 서쪽에서 빛이 보입니다. **74년생** 욕심을 부리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따를 것입니다. **86년생** 투기성 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51년생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세요. **63년생** 다른 날보다 무척 바빠집니다. **75년생**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87년생**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52년생 눈에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64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6년생** 구설수를 항상 조심하세요. **88년생**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53년생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세요. **65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77년생** 주변사람이 배신하게 됩니다. **89년생** 기쁜 하루를 보냅니다.

54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66년생** 다툼을 벌여서 한 번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78년생** 가화만사성이라 했습니다. **90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습니다.

55년생 재수는 평탄한 편 입니다. **67년생**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79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9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합니다.

56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68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 하면 부당합니다. **80년생** 거짓말은 절대 안됩니다. **92년생** 오늘은 밖으로 나아가세요.

57년생 집에 있으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69년생** 배우자와 여행을 떠나세요. **81년생** 근심과 괴로움이 당신을 쫓아다닙니다. **93년생** 남의 일에 끼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58년생 오직 동쪽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70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인생을 즐기세요. **82년생** 할일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94년생** 집안 청소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59년생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세요. **71년생** 미래의 계획을 완성하세요. **83년생** 주변의 친구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95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부부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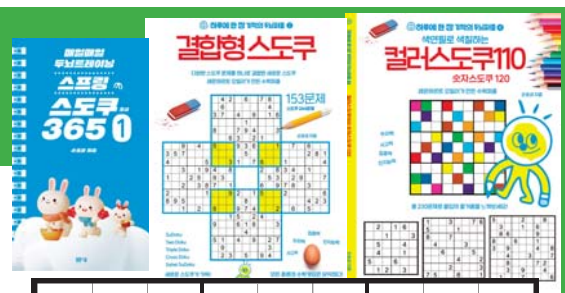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은 우리 국민에게 익숙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런데 '부부의 날'은 익숙지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에 비하면 부부의 날이 공식적으로 법정기념일이 된 것은 이제 이십 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제정추진위원회' 가 부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안을 거쳐서 2007년 5월 21일을 국가공인 법정기념일로 승격되었다고 한다. 본래 1995년 경상남도 창원에 살았던 권재도 교회 목사 부부가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제정하였고 부부간의 관계를 되새기고 화합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만든 기념일이라는데, 누군가는 가뜩이나 행사가 많은 5월에 굳이 부부의 날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하기도 한다. 5월에 행사가 많아 생활비 측면 가장 부담스러운 달이기도 하지만 결혼기념일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성격의 이중과세가 아니냐며 그닥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아닌 듯하다.

특히 결혼을 피하는 청춘남녀도 많고 혹여 이혼한 부부들도 많아진 형국에서는 뭔가 씁쓸한 날일지도 모르겠다. 부부지간은 때로는 맵다가 곱다가 애증이 교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의지처가 부부 사이다. 명리학 고전인 적천수(滴天髓)에 부처인연숙세래(夫妻姻緣宿世來)란 말이 있다. 부부가 되는 인연은 인위적이거나, 우연히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생에서부터 온다고 한 것이다. 부부의 금실이 좋고 나쁜 것, 즉 서로 자주 싸우거나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바람피우고 속 썩이는 것은 물론 자식이 잘되거나 속을 태우는 것은 물론이요, 처가나 시댁과 좋고 나쁜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독수공방 등등이 모두 전생에 정해진 각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불가에서 말하는 부부인연은 칠천 겁의 인연이라고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뭠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5		3			1
			8			3	2	7
		9	4	3		1	8	
		5				9		
	1	4		5	9	7		
9	3	7			8			
6			9		4			8

		1		6			8	3
6			9					
			1		2		7	
8	9		2				6	
		7				3		
	6				3		5	9
	2		6		1			
					4			7
3	1			8		5		

할인도서

8	3	2	4	7	9	1	5	6
4	1	5	8	2	6	9	3	7
9	7	6	5	1	3	8	4	2
3	6	7	9	5	2	4	1	8
2	4	9	7	8	1	5	6	3
5	8	1	6	3	4	7	2	9
6	5	4	3	9	8	2	7	1
7	2	3	1	6	5	9	8	4
1	9	8	2	4	7	6	3	5

6	2	5	9	8	7	4	1	3
7	9	1	4	2	3	6	8	5
8	3	4	1	5	6	9	2	7
9	5	8	3	7	4	2	1	6
2	1	6	8	9	5	3	4	7
4	7	9	6	3	2	1	5	8
1	8	3	5	6	9	7	4	2
5	6	2	7	4	1	8	9	3
3	4	7	2	1	8	5	6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44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샴페인, '레어'를 선택할 자유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51

"자연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지 않는다. 샴페인 레어도 그렇다."

빈티지 샴페인의 특별함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

와인에서 빈티지(vintage)란 포도를 수확한 해를 말한다. 보통 와인이라면 매년 빈티지를 달고 나오지만 샴페인은 논(non) 빈티지가 보통이다. 빈티지 샴페인은 작황이 뛰어난 해에만 그해 포도로 만든다. '레어'는 빈티지 샴페인만 내는 하우스다.

샴페인 레어의 글로벌 디렉터 모드 라뱅(Maud Rabin·사진)은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모든 빈티지는 자연에서 시작한다"며 "해마다 같은 샴페인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스타일에 충실하면서 특별한 빈티지 각각이 지닌 비범한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레어 밀레짐(Rare Millesime) 2015'를 선보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2015 빈티지가 시장에 출시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다른 나라는 내년 봄에나 나온다.



레어 밀레짐 2015 빈티지. /아영FBC



샴페인 레어의 글로벌 디렉터 모드 라뱅이 이달 한국을 방문에 레어의 2015 빈티지 출시를 알렸다. /아영FBC

레어는 설립자인 플로랑 루이 하이직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만난 당시 '왕비에게 걸맞은 퀴베'를 만들겠다고 한 데서 출발했다. 첫 빈티지는 1976년이다. 파이퍼 하이직의 상급 라인으로 있다가 2018년에는 독립 브랜드가 됐다.

레어를 관통하는 두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자유'와 '시간'이다.

먼저 샴페인 하우스로서 해당 빈티지를 만들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샴페인을 말하는데 불쑥 자유가 나온 게 바로 납득이 된다.

라뱅 디렉터는 "우리는 양이 아니라 품질을 따른다"며 "수확의 품질, 신선함과 숙성도의 균형, 향의 복합성, 그리고 뛰어난 숙성 잠재력 등이 선택의 핵심 기준이지만 기술적 탁월함을 넘어 레어 샴페인이 될 만한 개성과 깊이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50년 동안 레어가 낸 빈티지는 2015년까지 단 15번에 그친다.

레어는 9개~11개 마을의 포도로 샤르도네 70%, 피노 누아 30%를 블렌딩해 만든다. 특히 좋다는 샴페인이 보통 코트 데 블랑의 샤르도네를 쓰는 것과 달리 레어는 몽타뉴 드 랭스에서 가져온다.

그는 "피노누아의 왕국이라 불리는 마을에서 자란 샤르도네로 양조한다"며 "샤르도네가 지배적인 마을과는 토양도, 포도나무가 자라는 방식도 달라 레어만의 신선함과 미네랄리티가 여기서 나온다"고 밝혔다.

2015 다음으로 나올 빈티지는 알 수 없지만 제외된 빈티지 하나는 확실하다. 2026년이다. 그는 "올해는 앞으로 20년, 40년을 버틸 좋은 과일의 풍미를 얻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자유는 출시 시기에도 통한다. 레어는 2012보다 2013 빈티지를 먼저 내놓았다. 2015 빈티지 역시 2025년에 낼 수도 있었지만 1년을 더 기다렸다.

라뱅 디렉터는 "시간은 각 빈티지가 복합성과 깊이, 개성을 온전히 펼치게 해 준다"며 "와인이 스스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셀러에 두고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레어는 빈티지마다 특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름을 붙인다. 2012 빈티지가 '환희의 송가(Ode to Joy)'였다면 2015 빈티지는 '봄의 송가'다.

2012는 서늘한 해에 태어났다. 그는 "아주 신선한 빈티지"라며 망고, 자스민, 오렌지 블라썸, 라임 향을 꼽았다.

2015 빈티지는 '프리마 베라(Prima Vera)'다. 라틴어로 봄이라는 뜻이다. 2015는 1년 내내 더운 해였다. 라뱅 디렉터는 "햇살을 듬뿍 받아 포도의 당도가 높았던 햇살 가득한 빈티지"라고 했다. 신선한 키위와 자스민 같은 꽃향기, 민트와 허브티 향에 살짝 익은 파인애플과 꿀의 뉘앙스가 더해진다.

샴페인 레어에 대한 얘기는 자유로 시작해 자유로 끝난다. 빈티지를 만들지 않을 자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자유. 그리고 우리에겐 레어를 선택할 자유다. 겨울의 문턱에서 마시는 봄의 송가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CGV, SCREEN X 특별관 2종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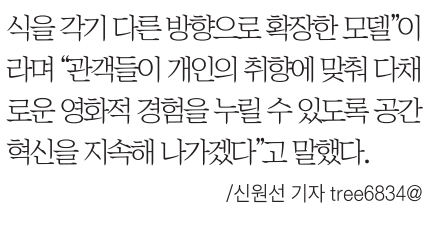
여의도·씨네드쉐프 용산점서 개관
고화질 스크린, 프리미엄 리클라이너

CJ CGV가 다면상영특별관 SCREENX의 기술과 관람 환경을 차별화한 신규 특별관 2종을 선보인다. 고화질 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상영관과 프리미엄 리클라이너 좌석을 갖춘 상영관을 각각 도입해 특별관 경쟁력을 강화한다.

CGV는 오는 12월 7일 서울 여의도점에 'SCREENX LED관'을, 씨네드쉐프 용산점에 'SCREENX LUX관'을 개관한다고 25일 밝혔다.

여의도점에 들어서는 SCREENX LED관은 국내 최초로 3면 파노라마 스크린에 자체발광 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상영관이다. 기존 영사 방식과 달리 LED가 직접 빛을 내는 구조로, 깊은 명암비와 선명한 색감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좌우 스크린에는 곡면 설계를 적용해 화면이 관객의 시야를 자연스럽게 감싸도록 했으며, 16채널 이머시브 입체 음향 시스템도 구축했다.

씨네드쉐프 용산점의 SCREENX LUX관은 관람 편의성을 강화한 공간이다. 270도 파노라마 스크린에 북유럽 프리미엄 리클라이너 브랜드 스트레스리스의 시네마 전용 좌석을 결합했다. 편안한 좌석에서 정면과 좌우로 확장되는 화면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SCREENX LED. /CJ CG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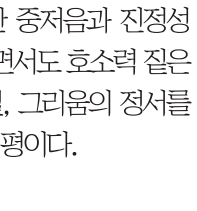
CGV는 개관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여의도점은 사전 시사회 응모를 통해 선정된 관객에게 12월 7일 '어벤져스: 엔드게임 앙코르'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씨네드쉐프 용산점은 아이파크몰 앱 이벤트를 통해 추첨으로 50명에게 전용 관람권과 팝콘 쿠폰을 증정한다. 오픈 기념 회차 예매 고객에게는 별도 굿즈도 제공한다.

고재수 CJ CGV 시네마사업본부장은 "SCREENX LED와 SCREENX LUX는 SCREENX 고유의 차별화된 상영 방식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확장한 모델"이라며 "관객들이 개인의 취향에 맞춰 다채로운 영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노래교실 강사들이 뽑은 이달의 가수 '배금성'

중장년 남성 회원들에게 '인기'



한국가요강사협회 소속 노래교실 강사들이 선정한 11월 '이달의 가수'에 트로트 가수 배금성(사진)이 이름을 올렸다.

배금성의 음악적 뿌리는 남다르다. 한국 가요사의 전설로 불리는 故 백년설('나그네 설움', '번지없는 주막' 등)의 외손자이자 합창단원으로 활동한 어머니의 음악적 감성을 물려받았다.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키운 계기는 군 복무 시절이다. 취사병으로 근무하며 틈틈이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는 부대 노래자랑에서 1등을 차지했고, 당시 무대를 지켜본 사단장의 지시로 군 문선대에 발탁됐다. 장병들 앞에서 노래하며 느낀 벅찬 박수와 감동은 그를 평생 노래의 길로 이끈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이후 2002년 작곡가 김병걸을 만나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거치며 탄탄한 실력을 다졌다.

배금성의 음악에는 오랜 무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한 중저음과 진정성이 배어 있다. 편안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사랑과 이별, 그리움의 정서를 섬세하게 풀어낸다는 평이다.

2022년 발표한 '사랑이 비를 맞아요'는 방송과 온라인 커버 영상을 통해 대표적인 역주행 곡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연정', '사랑이 두 개', '낮엔 비 밤엔 당신' 등 다수의 곡이 전국 노래교실 애창곡으로 불리며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중장년 남성 회원들의 지지가 두터워 남녀 모두가 함께 즐기고 따라 부르는 가수로 통한다.

178cm의 훤칠한 체격과 단정한 무대 매너, 건강한 이미지 역시 그의 강점이다. 한·몽골 친선마라톤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한 그는 좋은 노래를 오래 들려주기 위해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일 역시 팬들을 향한 노래꾼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신원선 기자

〈11월 노래교실 애창곡〉 /한국가요강사협회

순위	곡명	가수
1	눈뜨고 있는 한	강문경
2	역마차 싸롱	윤수현
3	신년만	양지은
4	나비야	전유진
5	옛날 애인	전부성
6	다시는	나훈아
7	아이 좋아	린
8	딱 한번의 실수	임현정
9	바람의 소원	채희
10	나는 반딧불	황가람
11	이정표	장윤정
12	고창에서 왔어요	김현
13	하늘에	장윤정
14	나 이러는 동안	조항조
15	순정	강문경
16	빈 술잔	정의송
17	안양역 첫차	박혜신
18	가시 여인아	태진아
19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솔지
20	인간 시장	진성
21	목포행 완행열차	장윤정
22	금수저	김용빈
23	고맙소	조항조
24	인생열차	나태주
25	찐이야	영탁
26	참회	최진희
27	내가 왔어요	우설민
28	연정	배금성
29	미운사랑	진미령
30	연모	박우철

메트로 한줄뉴스

▲"중국 AI칩 출하량 2030년 1000만개 돌파 전망…작년 6배" /사진 뉴시스

▲美, '호남 반도체' 정조준하며 "협의 불만족시 관세 25%" 압박

▲우크라군 숨통 트일까…美, 우크라에 F-16 정비물자 판매 승인

▲폴란드, 우크라 접경 비행금지구역 설정…러 영공 침범 대응

▲젠슨 황 돌아왔지만…美 여야 지도부, 中칩 규제 강화 한목소리

▲美 국방장관 내달 방일…주일미군 분담금·방위비 증액 논의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44호 2026년 11월 27일 금요일



스타벅스
'K-헤리티지' 승부수
"내년 질적성장 원년"
L1

'뇌 건강'
新 패러다임
조기진단 방점
L2





자연의 숨결이 닿는 곳 '계절의 멋' 누리는 일상

아파트의 미학(美學)

'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

검단신도시 내 1224가구 대단지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갖춰

잔디광장·티하우스·수경 조화
나무 향기 가득한 데크 산책길
단지 곳곳 여유로운 쉼터 마련

사계절 풍경 담은 테마정원 조성
어린이 자연체험 채소원 눈길
세대별 특성 살린 맞춤 운동시설

인천지하철 1호선 신검단중앙역에서 약 15분을 걸으면 '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에 닿는다. 동부건설이 시공한 이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 AA21블록에 들어선 지상 최고 20층, 13개 동, 1224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아파트다. 전용면적은 74㎡와 84㎡로 구성됐다.

단지 주변에는 인천검단나래유치원과 인천신검단초등학교, 인천검단가온중학교가 자리한다. 인근 고등학교는 내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 동쪽으로는 고인돌공원과 근린공원 등 녹지가 이어지고, 주변에 상업시설도 들어서 있다. 신검단중앙역 개통으로 철도 접근성도 높아졌다.

단지 안에는 피트니스시설과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를 갖췄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나무 향이 스며든 정원이 펼쳐진다.

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 단지의 중심에는 '블루심포니 플라자'가 있다. 잔디광장 너머로 대형 티하우스가 보이고, 주변에는 경관수목과 수경시설이 어우러져 있다. 광장 주변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풍경을 다채롭게 한다. 벤치와 데크 위에 내려앉은 낙엽은 늦가을의 정취를 더한다. 데크로드에 발을 딛으면 '탁탁' 하는 소리가 난다. 나무를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며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중앙 광장을 둘러싼 갈색 데크와 나무 의자, 티하우스의 목재 마감은 단지 곳곳에서 이어진다.

광장과 맞닿은 '프레쉬데크로드'에는 걷다가 잠시 머물 수 있는 넓은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 한 사람씩 앉는 나무 의자 네 개를 두 개씩 짝지어 놓았다. 이곳에 앉으면 티하우스와 놀이터, 조형물 등을 볼 수 있다. 광장에서 이어지는 산책길을 따라가면 나무 사이에 놓인 데크 쉼터를 차례로 만난다. '핀오크레스트가든'에는 흔들의자도 마련돼 있다.

티하우스 안팎에도 나무의 따뜻함이 이어진다. 안에는 원형 의자와 넓은 바 테이블, 펜던트 조명을 두고, 바깥쪽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양을 설치했다. 창 너머로 데크길이 보인다.

정원 곳곳에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담은 조형물이 놓였다. '바람, 숲, 그리고 이슬'은 바람과 이슬을 소재로 생명력 있는 자연을 형상화했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근원인 자연의 위대함을 표현했다.

'아름다운 동행'은 두 갈래의 부드러운 곡선을 반복해 뫼비우스띠 처럼 이어지는 형태다.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정원에 놓인 두 작품은 단지의 녹지를 감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실감하게 한다.

나무 사이로 이어지는 산책길 옆에는 높이와 모양이 다른 철봉 등 다양한 운동시설을 배치했다. 걷기 코스와 달리기 코스를 색으로 구분해 놓은 트랙이 눈에 띈다. 입주민은 단지 안에서 가볍게 산책하거나 정원을 보며 달릴 수 있다. 경로당 앞에는 시니어 운동시설도 마련했다. 이곳 운동기구에도 목재를 활용해 주변 데크와 분위기를 맞췄다.

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 단지의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 분위기가 한 번 더 바뀐다. '일상의 무늬'라는 이름의 정원이다. 포시즌가든과 피크닉마당, 물소리정원, 단풍나무숲 등 성격이 다른 공간이 산책길로 이어진다.

일상의 무늬 정원을 채운 노란 잎과 붉은 단풍은 유난히 선명했다. 넓은 중앙 잔디마당 너머로는 물든 동산이 보였다. 은행잎이 쌓인 숲길을 지나면 하얀 디딤돌과 물길, 쉼터가 차례로 나타난다.

쉼터 역시 정원을 보는 방식을 바꿔 놓는다. 둥근 지붕 가운데를 뚫어 하늘과 단풍을 올려다볼 수 있게 했고, 나무 데크 위에는 밖을 향해 앉는 바 테이블을 놓았다. 지붕과 기둥, 의자와 테이블이 하나의 곡선 공간을 이루며 머무는 자리 자체가 조경의 일부가 된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눈에 띈다. 어린이집 옆 '채소원'은 단지 어린이들이 자연을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원이다. 낮은 텃밭이 길을 따라 놓여 있고, 뒤편에는 작은 쉼터와 놀이터가 이어진다. 집 가까운 조경 공간을 통해 아이들이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살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① ④ 숲 산책길
② 조형물 '아름다운 동행'
③ 달리기·걷기 트랙

